Industry p/11
자유자재 휘는 액션캠 PIC

metro
메트로 2015년 4월 27일 월요일

Life p/15
거문도 3대 특산품 사세요

이번엔 면세점용 쇼?

메트로 창간 13주년 기획 〈相生〉 ◆ 자영업을 살리자 - 남대문시장 p/12

신세계 면세점 입찰 앞두고 "1억 쏴서 남대문시장 살리겠다"
중구청과 1년반새 MOU만 세번째… 상인들 "이젠 기대도 안해"

폐허된 신과 산의 땅
네팔 최대 4500명 사망 p/3

중남미가 가까워졌다

박 대통령, 해외 순방 마치고 오늘 귀국… 각종 MOU 체결 성과

박근혜 대통령이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26일 귀국길에 올랐다. 27일 오전에 도착할 예정이다. 마지막 순방국인 브라질에서 서울까지 비행시간만 30시간일 정도로 중남미는 멀리 있다. 11박12일이 아닌 9박12일 일정이 된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순방은 무엇보다 한국과 중남미 간 지리적 거리를 극복하고 양측이 한층 가까워졌다는 게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박 대통령은 콜롬비아, 페루, 칠레, 브라질 등 4개국을 순방하는 중에 "지리적 장벽은 이제 인터넷과 ICT 기술의 발달로 더 이상 장벽이 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콜롬비아에서는 코트라(KOTRA)와 콜롬비아 전자상거래협회 간 유통망과 전자상거래 진출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로 중남미의 온라인 중소유통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했다. 청와대는 5년 내 중남미 전체에 연간 30억 달러 이상 수출이 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인력 교류도 늘어날 전망이다. 칠레와의 '중소기업 참여 협력 MOU' 체결로 국내 청년 기술창업자들의 칠레 진출이 가능해졌다. 브라질과도 창조경제혁신센터 모델을 전수하고 창업 프로그램과 기술·인력 등을 교류하는 MOU를 체결했다.

이 외에 국내 중소기업들의 중남미 진출을 돕는 여러 MOU도 체결됐다. 페루에서는 국산 경공격기인 FA-50의 수출 가능성을 키웠다.

중남미 도시들은 고지에 많이 있어 우리 국민에게는 고산병 등 장애 요인이 많다. 이번 순방길에 박 대통령은 고산병을 겪지는 않았지만 편도선과 위통을 호소했다. 매일 주사와 링거로 강행군을 버텼다는 전언이다.

/송병형기자 hmsong@metroseoul.co.kr

지열한 막판 선거전 김무성 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가 26일 서울시 관악구 노량진에서 4·29 재보선 관악을에 출마한 오신환 후보와 함께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위), 같은 날 인천 서구·강화을에 출마한 신동근 후보를 지원하고 있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아래). /연합뉴스

문재인 "성완종 사태, 박 대통령이 수혜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6일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수혜자 아닌가"라며 압박하고 나섰다.

문 대표는 이날 4·29 광주서을 보궐선거 지원을 위해 광주 풍암호수공원에서 지원유세를 벌이다 기자들을 만나 "박근혜정권 최고 실세들의 이번 부정부패 사건에는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의 경선자금, 그리고 대선자금이 포함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23일 문 대표는 국회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대선자금 특검'을 요구한 바 있다.

문 대표는 이날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번 수사를 지휘하고 조정하는 입장에서 물러나 공정한 수사를 보장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은 대국민사과뿐 아니라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문 대표는 박 대통령이 귀국 후 어떤 방식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어떻게 방식까지 얘기하겠느냐"며 즉답을 피했다.

문 대표는 여권이 2007년 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특별사면 특혜 의혹을 매개로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자신 등을 겨냥, 역공에 나선데 대해서는 "지금 박근혜정권 최고 실세들의 부정부패사건과 박 후보 캠프의 정치자금, 대선자금이 드러난 사건을 놓고 왜 특별사면을 질문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진실적인 부정부패 사건과 정치자금, 대선자금의 실상을 규명하는 일 아니냐"며 "언론도 중심을 잡아주시라. 언론도 그 일에 사명을 다하셔야죠"라고 주문했다.

/이정우기자 [illegible]

이야기 하는 한-브라질 정상 박근혜 대통령과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이 24일 오전(현지시간)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기류대의 행진을 보며 이야기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315곳 학교, 소방차 진입 불가

전국의 315곳 학교가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국민안전처가 국회 국민안전혁신특위 소속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1만1446곳 가운데 약 2.5%인 315곳에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원인으로는 연결통로 설치로 인한 소방차 진입 장애가 107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단 설치 103곳, 정문 협소 62곳, 구조물 설치 43곳 등의 순이다. 학교별로는 초등학교 156곳, 중학교 53곳, 고등학교 70곳, 특수학교 6곳으로 집계됐다.

연기 속 대피 체험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서울안전체험 한마당'에서 어린이들이 화재 발생 시 연기를 피해 대피하는 법을 체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전국의 학교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는 총 630건(연평균 210건)에 달했다. 현행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는 소방차 진입과 관련된 규정이 없다. 관련시설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방차 진입이 용이하지 않는 학교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안전처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개정을 통해 학교 설립 시 소방차 진입과 소방활동이 가능하도록 계획 중에 있다.

이 의원은 "학교의 경우 좁은 공간에 많은 수의 어린 학생들이 생활하는 곳"이라며 "화재 진압과 응급구조를 위한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문 확장 공사나 계단 제거 등 조치를 취해서 학교 내에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서이기자 [illegible]

적막한 총리공관 이완구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뒤 머물고 있는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이 26일 오후 적막한 모습이다. 총리 공관에는 일부 총리실 관계자를 제외한 방문객이 없는 상태다. /연합뉴스

'네팔 강진' 사망자 최대 4500명 이를 듯

한국인도 1명 중상
각국서 긴급구호 급파

네팔 대지진 사망자가 26일(이하 현지시간) 1800명을 넘어섰다. 지난 25일 네팔 수도 카트만두 인근에서 발생한 규모 7.8의 강진은 1만700명의 사망자를 낳은 1934년 대지진 이후 네팔 역사상 최악의 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번 대지진은 강력한 규모, 얕은 진원, 취약한 건물 등으로 피해가 컸다.

이날 네팔 정부 집계에 따르면 네팔의 사망자는 1805명, 부상자는 4718명에 달한다.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인근 국가에서도 피해가 발생해 모두 합치면 사망자 수는 1865명에 달한다.

아직 건물 잔해 속에 남은 사상자들이 많아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네팔 당국은 사망자가 최대 4500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네팔에 우리 국민 650명 정도가 체류하고 있지만 26일 오후 현재 가벼운 부상자 2명과 중상자 1명만 확인됐다. 여행자가 많아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상자를 포함해 부상자 2명이 여행자다.

네팔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을 동원해 야간에도 헬기를 이용한 수색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미국이 긴급 재난구호팀을 파견하고, 적십자, 옥스팜, 국경 없는 의사회, 크리스천 에이드 등 국제 지원단체들도 네팔로 대원들을 급파하고 있다. 유럽 등 국제사회도 지원을 약속한 상태다. 우리 정부도 100만 달러를 긴급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지진은 인명과 재산 피해는 물론이고 문화재 손실도 커 국제사회의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박타푸르 두르바르 광장, 파탄 두르바르 광장, 비산타푸르 두르바르 광장, 보다나트 스투파 등 4곳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심각하게 훼손됐다. 네팔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은 총 7곳이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번 지진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대체 불가능한 문화 유적의 손상이 있었다"며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황청 국무원장인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의 이름으로 네팔 가톨릭에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로하는 전문을 보냈다.

/채윤정기자 yoonji@metroseoul.co.kr

대지진으로 폐허가 된 네팔 수도 카트만두 인근 모습(위). 25일(현지시간) 네팔 수도 카트만두 인근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대규모 참사가 발생했다. 자원봉사자들이 희생자의 시신을 들것에 실어 옮기는 모습(아래). /연합뉴스

남겨진 자의 슬픔 대지진으로 가족을 잃은 네팔 유족들의 절규하는 모습(위)과 수도 카트만두 노천을 피난처로 삼은 난민들의 모습(아래). /연합뉴스

히말라야도 '아수라장'

히말라야도 강진으로 아수라장이다.

25일(현지시간)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 근처에서 발생한 규모 7.8의 강력한 지진은 히말라야 산군에 눈사태를 일으켰다.

최고봉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에 눈사태가 덮쳐 지금까지 17명이 숨지고 61명이 부상했다고 AP통신은 26일 보도했다.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를 포함, 그 주변 지역에는 4~5월 고산등반 시즌을 앞둔 탐험가와 셰르파 등이 1000여 명이 머물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에베레스트의 한 트레킹 가이드는 AP와의 인터뷰에서 "부상 정도가 심한 22명은 헬기를 이용해 가장 가까운 군 시설이 있는 페리체 지역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루마니아 산악인 알렉스 가반은 트위터를 통해 "살기 위해 텐트에서 도망쳤다"고 다급했던 순간을 회상했다. 가반은 나중에 다시 트위터를 통해 "대재앙이 닥쳤다"며 "잔해를 뒤지며 구조작업을 돕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많은 산악인이 숨졌고 더 많은 이들이 다쳤으며 부상자들을 이송할 헬기 지원이 없다면 희생자의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김서이기자 raddsun217@

네팔 대지진이 인근 히말라야까지 영향을 미쳤다. 대지진으로 발생한 히말라야 눈사태 모습(위),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에서 부상자를 실어 나르는 헬기의 모습(아래). /연합뉴스

네팔 체류 창원 태봉고 일행 48명 '모두 안전'

한국인 부상자 3명으로 늘어… 추가 피해 여부 파악 중

네팔로 이동학습을 떠났던 경남 창원시 태봉고 학생과 교사 등 48명이 지진으로부터 모두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16일 네팔로 이동학습을 갔던 태봉고 학생과 교사들은 현재 네팔 포카라에 머물고 있으며 모두 안전한 상태라고 26일 밝혔다. 지진은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 북서쪽 80km 지점에서 발생했다. 포카라는 카트만두에서 서쪽으로 200km 떨어진 관광도시다.

태봉고의 구관서 교감 등 교직원 4명과 2학년 학생 44명은 지난 16일 저녁 8시 학교를 떠나 다음날 아침 8시25분 네팔로 출국했다. 지진이 일어난 카트만두와 포카라, 바네파, 타나후 등을 돌며 자매학교를 방문하고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였다. 카트만두에는 지진이 일어나기 사흘 전인 지난 22일 머물렀다. 태봉고 교직원과 학생은 다음달 1일 밤 11시20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이었다.

태봉고 측은 지진이 일어나자 네팔에서의 이동학습 일정을 모두 중단했다. 귀국 일정을 앞당겨 필요한 안 27일 한국으로 들어오기 위해 비행기표를 알아봤지만 구하지 못했다. 교직원과 학생들은 예정대로 다음달 1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이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한국인 부상자 1명 외에 2명의 부상자가 추가로 확인돼 총 한국인 부상자는 3명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현재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상황실을 가동 중이다. 주네팔 한국대사관은 우리 국민의 추가 인명과 재산 피해 여부를 파악 중이다. 네팔에는 우리 국민 약 650명이 체류하고 있으며 다수 여행객도 방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서이기자 raddsun217@

"Kwon Sung Dong Not Close Enough, Jung Doo Un Wins"

Former Kyung-nam Industry CEO Sung Wan Jong's special pardon during former president Roh Moo Hyun administration, has become a hot issue lately.

Not only the opinions among the ruling party are different, but also within the opposition party as well.

Especially the opinions among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personnel differ regarding former president Lee Myung-bak's request.

Senator Jung was the presidential aide of the secretary's office within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and Secretary to the President for Legal Affairs. Kwon Sung Dong says firmly that it is completely irrelevant. Who is telling the truth? Senator Jung Doo Un stated that one of the core members of Lee Myung-bak's administration took part in the pardon of the former CEO Jeon. Senator Jung Chug Rae of New Politics of democracy stated on his twitter saying, "Kwon Sung Dong is wrong and Jung Doo Un is right." "Jung Doo Un was in a position where he could know the truth and Kwon Sung Dong was just around the boundaries."

During the special pardon of former CEO Jeon, senator Jung was the influential of the former president Lee Myung-bak. That was before he was led aside from it.

/외고대학원 영어통역

Chris Kim(김종권) 강사

"권성동은 변두리서 귀동냥 … 정두언 승"

노무현정부 말기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을 두고 진실게임이 한창이다. 여야 사이는 물론이고 여당 내에서도 주장이 갈린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요청 여부를 두고 이명박정부 인사들끼리도 말이 다르다.

정두언 의원은 "이명박정부 핵심인사가 성 전 회장 사면을 특별히 챙겼다"고 말한다. 권성동 의원은 "전혀 관련없다"고 잘라 말하고 있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 이명박정부에서 정 의원은 대통령 당선자 비서실 보좌역을 지냈고 권 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을 지냈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2일 자신의 트위터에 "권성동이 틀렸고 정두언 말이 맞다"고 적었다. "정두언은 그걸(진실을) 알 위치에 있었고 권성동은 변두리에서 귀동냥하는 정도였을테니까"라는 이유에서다. 실제 성 전 회장 특사 때 정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실세 중 실세였다. 측근의 위치에서 밀려나기 전이었다.

아이유와 술 권하는 사회

송병형의 다른 생각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과잉입법 논란에 휩싸였다. 이 개정안은 청소년이 모래로 착각하기 쉬운 24세 이하의 주류 모델을 금지한다. 청소년의 음주를 막자는 취지다. 법적으로 우리나라는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음주가 가능하다. 모델의 경우 술을 마실 수는 있지만 술 광고는 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소주 '참이슬' 모델로 활동 중인 아이유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6개월이 지나 발효된다. 1993년 5월생인 아이유는 개정안이 발효되면 2017년 5월까지 주류 광고가 제한된다. 젊은 스타들이 자신의 황금기에 주류 모델로 나섰다. 아이유는 자신의 황금기를 놓치는 셈이다. 아이유의 팬들과 많은 애주가들이 과잉입법이라며 반발하는 이유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도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우려하며 "미국, 영국 등도 법률로는 음주 허용 연령과 주류 방송 광고 출연 허용 연령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률에는 TV 주류 광고 출연 제한 연령을 미성년자로 규정하되 주류 업계 자율로 법률보다 연령을 상향하여 규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적으로 미국은 만 21세 이상에게 음주와 주류 모델을 허용하고 있다. 영국은 만 18세 이상이다. 미국과 영국은 대신 업계자율로 만 25세 이상의 주류 모델만을 허용하고 있다.

법률과 업계자율에 의한 규제의 차이는 크다. 개정안은 업계가 규정을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벌금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범법자라는 낙인이 찍힌다. 자율규제 위반과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된다. 개정안은 발효와 함께 사문화될 우려도 있다. 법을 어겨가며 모델을 선택할 업계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처벌조항이 아닌 가이드라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이처럼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마냥 국회의원 탓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2012년 김연아의 하이트 맥주 광고 논란으로 태어났다. 개정안이 발의된 시점은 2012년 7월 2일이다. 이후 3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업계자율 규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2012년 김연아를 맥주 모델로 내세운 하이트진로는 2014년 11월 아이유를 참이슬 모델로 내세웠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에리사 새누리당 의원 측은 "갈수록 주류 광고의 모델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데, 이는 (젊은 층을 공략하려는) 주류업체의 전략"이라고 꼬집었다. '술 권하는 사회'를 업계가 조장하니 국회도 과잉으로 대응했다는 이야기다. /정치부장

원·엔 환율 800원대 시대, 준비 돼 있나

기자 수첩
김 민 지 <경제부 기자>

엔저 공포가 다시 엄습해 오고 있다. 정부의 원·엔 환율 방어선으로 여겨지던 100엔당 900원 선이 7년2개월 만에 붕괴됐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오전 한때 원·엔 환율은 100엔당 899원을 기록했다. 원·엔 환율이 900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2008년 2월 29일(895원) 후 처음이다. 이날 원·엔 환율은 다시 900원대로 진입해 100엔당 903원(오후 3시 기준)까지 올랐다. 원·엔 환율은 원화와 엔화를 직접 거래하는 외환시장이 없어 원-달러 환율과 엔-달러 환율을 계산해 정하는 재정환율을 사용한다.

전문가들은 "엔저의 가속화는 한국 경제에 대한 경고의 시그널로 볼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처럼 엔화 약세의 가속화가 진행되면서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엔저 여파로 국내 수출기업들의 채산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원·엔 환율 하락세는 가뜩이나 저조한 수출에 더욱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국내 금융시장에도 적잖은 위험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엔화 가치가 하락하면 일본 제품의 가격경쟁력은 높아진다. 반면 우리 상품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 수출입은행은 원·엔 환율이 10% 하락할 때마다 국내 수출은 평균 4.6%씩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올해의 환율 전망이 이미 850원선까지 나와 있는 만큼 수출은 갈수록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올 들어 수출은 이미 3개월째 감소세다.

문제는 정부의 대응책이 딱히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엔저를 견제할 수 있는 금융 외교 등 원·엔 환율을 안정시킬 대책마련을 시급히 서둘러야 한다. 이미 우리는 지난 2006~2007년 원·엔 700원대의 엔저 터널을 극복한 경험이 있다. 그러나 그 때는 글로벌 경기 호조세가 받쳐주고, 중국 성장세도 왕성해 수출에서 엔저 부작용을 상쇄할 여지가 충분했었다.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정부는 금융적 정책수단의 동원에 신중해야 한다. 당장 가격 경쟁력을 조금이라도 만회할 통화정책을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기업들 역시 자구노력과 함께 가격경쟁력을 앞서는 제품 개발에 힘써야 할 때다.

인사

■ 기획재정부
◇ 과장급 전보 ▲ 경영정보과장 정화길
■ 국토교통부
◇ 국장급 전보 ▲ 물류정책관 권용복 ▲ [illegible]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김수곤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장 [illegible] ▲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장 [illegible]
■ 문화재청
◇ 고위공무원단 등용 ▲ 문화재활용국장 [illegible]
■ 한국시설안전공단
◇ 전보 ▲ 감사실장 김정호 ▲ 경영본부 [illegible] ▲ 경영본부 [illegible] 이승열 ▲ 경영본부 조직혁신추진 T/F 단장 이완익 ▲ 기술본부 진단평가실장 임춘길 ▲ 기술본부 생활시설안전실장 지용철 ▲ 기술본부 [illegible] 박석호 ▲ 시설안전본부 진단계획실장 오영석 ▲ 시설안전본부 [illegible] 이학성 ▲ 시설안전본부 [illegible] 박태호 ▲ 시설안전본부 특수교육지원센터 [illegible] 한자옥 ▲ 시설안전본부 특수교육지원센터 [illegible] 이상철 ▲ 시설안전본부 [illegible] T/F 팀장 박석윤 ▲ 건설안전본부 건축안전실장 김종대 ▲ 건설안전본부 건설평가실장 방도석 ▲ 녹색건축본부 그린리모델링실장 [illegible]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illegible]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분쟁조정팀장 [illegible]

부고

▲안의준씨 별세, 안혜선(전 서울신라은행 지점장) [illegible] 모친상 [illegible] = 25일 오후 7시 수원 [illegible] 장례식장 3호실 발인 29일 오전 9시 ☎031-[illegible]

▲유승혜씨 별세, 이경희씨 모친상, 김옥진(GE 코리아 전무)씨 빙모상 = 25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4호실 발인 28일 오전 7시 ☎02-2227-7507

▲[illegible] 별세, [illegible] = 25일 오후 2시 35분 [illegible] 장례식장 101호실, 발인 28일 ☎053-[illegible]

윤종규號, 중기대출·기술금융 실적 '쑥쑥'

1분기 중기대출 잔액 70조… 3개월 새 2조4천억↑
기술금융 실적은 3조3천억… 시중은행 중 1위

윤종규 KB국민은행장의 중소기업 대출과 기술금융 드라이브가 효과를 내고 있다. 특히 이들 분야는 윤 행장이 취임 초부터 저금리시대 전략으로 꼽은 사업이다.

26일 은행권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국민은행의 소호(자영업자)대출을 포함한 중기대출 잔액은 70조7518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말보다 2조4000억원 증가한 수치로 전년 동기 증가액(5000억원)의 5배에 달한다.

이 실적은 경쟁사인 외환은행(1조2000억원), 하나은행(7000억원), 신한은행(3000억원) 등보다도 월등한 수치다.

소호대출 잔액도 지난해 말보다 1조6694억원 늘어난 43조7317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신한은행 증가액(1502억원)의 10배 수준이다.

국민은행의 소호대출은 지난해 1·2분기 각각 489억원과 1805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소호대출을 확대하면서 3분기와 4분기 증가액은 각각 9002억원, 3686억원에 달했다.

기술금융 실적도 고공행진 중이다.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를 토대로 지난해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9개월간 국민은행의 기술금융 대출 실적은 총 5522건에 3조3895억원이다. 이는 시중은행 실적 1위로, 2위인 우리은행(2조9984억원)보다도 4000억원이 많다.

이처럼 국민은행의 가파른 성장세는 윤 회장의 적극적인 지원 때문이다.

앞서 국민은행은 윤 조 조직개편을 통해 200명 규모의 '중소기업지원그룹'을 신설했다. 본부별로 산재되었던 인력을 한데 모아 중소기업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또 '원스톱(One-Stop) 서비스'와 'KB 와이즈(Wise) 컨설팅'을 잇따라 도입했다. 원스톱 서비스는 영업점이 기업대출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일괄적으로 조정해주는 영업지원 서비스 창구다. 기존에는 심사, 금리 외환 등 담당 부서가 제각각이라 대출승인까지의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 역시 한참 소요됐었다.

최근에는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등 전문가로 구성한 컨설팅 자문단을 1~2주간 기업에 상주시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기업여신 발굴을 위해 기업금융 경력자 30명도 특별채용했다.

기술금융 분야에서도 'KB금융그룹 기술금융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효과적인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서 지난해 금융지원 3대 핵심테마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지식 기술금융 지원 ▲중기 소상공인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짧은 기간 내에 경쟁은행보다 관련 분야에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khs840418@metroseoul.co.kr

GS건설 '신금호파크자이' 다음달 6~8일 계약 실시

GS건설은 서울 성동구 금호13구역을 재개발한 '신금호파크자이'의 계약을 다음달 6~8일까지 3일간 실시한다.

지하 3층 지상 21층 10개 동 전용면적 59~114㎡ 전체 1156가구 규모다. 이 중 347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금호동은 강남과 강북을 연결하는 서울 교통의 요충지다. 2012년 입주한 금호자이1차(497가구), 금호자이2차(403가구)와 함께 향후 2000여 가구의 '자이' 브랜드타운이 형성될 전망이다.

서울지하철 5호선 신금호역이 도보 1분 거리인 초역세권 단지로 종로, 명동, 광화문 등 도심으로 쉽게 이동 가능하다. 또 5·6호선 환승역인 청구역과 3호선 금호역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어 서울 강남·북 어디로든 접근이 용이하다.

이 외에도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 동호대교, 성수대교 등의 도로망도 갖췄다. 서울 각지는 물론 주변 도시로의 이동이 쉽다.

사립초등학교인 동산초교가 바로 인접해 있다. 주변에 무학중, 금호여중, 광희중, 한양사대부고, 무학여고 등이 밀집됐다. 동국대, 한양대, 숭의여대 등과도 가깝다.

앞서 22일 진행된 청약에서는 당해 1순위에서 전 주택형이 마감됐다. 67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당해지역에서만 1429명이 몰려 평균 21.3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전용면적 59㎡는 7가구 분양에 516명이 접수해 73.71대 1의 최고 청약률을 보였다. 이밖에 ▲84㎡A 20.67대 1 ▲84㎡B 11.00대 1 ▲84㎡C 27.30대 1 ▲84㎡D 11.45대 1 ▲114㎡ 2.57대 1을 기록했다.

신병철 GS건설 신금호파크자이 분양소장은 "신금호파크자이가 기존 자이타운과 함께 금호동 일대의 새로운 랜드마크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며 "일반 분양분은 1~20층까지 고르게 분포됐던 점에서 실수요자들에 많은 관심을 보인 것 같다"고 말했다.

오는 30일 당첨자 발표 후 5월 6~8일까지 3일간 계약이 진행된다. 계약금 10%를 2회로 분납 가능하며 1회차에서는 1000만원만 내면 된다. 중도금 60% 이자후불제가 적용된다. 입주는 2016년 4월 예정이다.

/박선옥기자 pso@metroseoul.co.kr

호반건설, 서울대공원서 봉사활동 호반건설은 지난 25일 서울대공원에 동물기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호반건설 직원과 그 가족들 250여 명은 호반가족 봉사단이 돼 동물 먹이주기, 잔디 씨앗 뿌리기 등의 활동을 펼쳤다. /호반건설 제공

경남기업, 조직 슬림화…임원 70% 감축

경남기업은 이성희 법정관리인 직속 체계로 조직을 슬림화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26일 밝혔다.

경남기업은 지난 7일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존 1부문 4본부 29팀을 3본부 14팀으로 통·폐합했다. 또 회생본부 3팀을 신설하고 본사 임원은 16명에서 5명으로 70% 감축했다.

회생본부는 회생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해 신속한 기업회생절차를 추진하기 위해 신설됐다. 경남기업은 이 조직을 통해 7월 15일 예정된 '제 1회 관계인 집회' 전까지 전체 채권 조사 및 회생계획안을 작성, 관리인 조사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박선옥기자

로또복권 제697회

1등 당첨번호						보너스숫자
5	10	21	23	24	30	26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원)
1등	6개 숫자 일치	2,189,795,708
2등	5개 숫자 + 보너스 숫자	58,073,707
3등	5개 숫자 일치	1,530,677
4등	4개 숫자 일치	50,000
5등	3개 숫자 일치	5,000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TEL 02)721-9800 FAX 02)730-156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현
편집국장	김세환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01

2002년 5월 31일 창간 / 등록번호 서울 가00230

보험서 펀드로 옮기면 사고보험금 못 받아

연금저축 계좌이체 간소화 갈아타기 전 체크 포인트는

기존상품과 수익률·수수료 수준 비교를
세액공제 한도·장기투자상품 고려해야

앞으로 금융회사 한곳만 방문해도 연금저축 계좌를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다만 자금 일부만 이체할 수는 없고, 이체 시 사망보험금 등 위험보장은 더이상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 연금저축 갈아타기 한번에 OK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금저축 계좌이체(이전) 간소화' 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연금저축 상품 가입자는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금융사를 방문해 계좌 이전 의사를 밝힐 시 기존 계좌의 자산을 새 계좌로 옮길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기존 금융회사와 신규 금융회사를 따로따로 찾아가 계좌를 만들고 이동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계좌번호 등 기존 계좌 정보만 알려주면 한번에 쉽게 바꿀 수 있게 된 것이다. 단 기존 금융사와 이체 신청 다음 영업일까지 확인 통화를 해야 한다.

이때 통화 내용은 녹음되며 이전을 최종 확정한 뒤에는 취소할 수 없다. 아울러 기존 가입 회사에서는 실무상 해지처리가 되므로 이동 전 수수료와 손실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현재 판매되는 연금저축은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보험(보험) ▲연금저축펀드(증권)로 구성돼 있다.

다만 퇴직연금(DB·DC·IRP)과 세제 비적격 개인연금 상품은 간소화된 계좌이체 절차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상품명에 '연금'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품도 있어 기존 가입 금융회사에 먼저 문의해야 한다.

보험에서 펀드나 신탁으로 이동 시에는 각 금융사 마다 특징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금저축보험을 연금저축신탁이나 펀드로 이동할 경우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판매중인 연금저축보험상품에는 위험보장이 되는 상품이 있고 다른 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으로 계좌이체 하더라도 기존에 받을 수 있었던 사고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특히 연금저축 보험을 가입후 7년 이내 이체하는 경우 해지공제액이 발생해 이체금액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

상품 납입 방식만 해도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펀드는 자유납입 방식인 반면 연금저축보험은 정기납입 방식을 취하고 있다.

◆ "미래설계 고려" 수수료 손실 여부 따져봐야

기존 상품과 신규 상품간의 수익률과 수수료 수준 등도 비교해야 한다.

예컨대 2000년대 초반까지 가입한 확정이자율 상품은 대부분 현재보다 고금리로 금리연동형 상품 최저보증이율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2000년 12월까지 판매된 옛 개인연금저축 계좌를 이전할 경우 신규 가입회사가 옛 개인연금저축 상품을 운영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현행 연금저축 상품은 연 400만원 한도로 납입액에 대해 일정 공제율을 적용해 세액을 빼주는 세(稅)테크 상품인 반면 옛 개인연금저축 상품은 72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납입액의 40%까지 소득 공제 혜택이 제공되기 때문이다.

김대익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연금저축계좌를 이동하고자 하는 가입자들은 반드시 자신의 재무상황과 금융사별 연금저축 계좌의 특성, 노후 활용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자신에게 적합한 연금저축 상품을 선택해 이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연금저축은 미래 노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중요한 사적연금중 하나이기 때문에 미래설계를 고려해야한다"며 "금융사별로 납입방식과 적용금리, 연금수령기간, 원금보장, 예금자보호 등에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도 "신규 가입 상품이 실적배당형 펀드 등 원리금 미보장 상품인 경우 고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기존 가입상품의 수익률과 수수료 수준 등을 비교해 어느 상품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연금저축 상품의 과거 수익률, 수수료 등은 금융감독원 '연금저축통합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앞으로 간소화된 계좌이체 절차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세은기자 sllver0202@metroseoul.co.kr

롯데건설, '운정신도시 롯데캐슬 파크타운'

경의선 야당역 신설 예정 … 1076가구 대단지

분양돋보기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에 3년만에 신규 아파트가 공급된다. 이 지역은 수도권 대표 미분양 단지로 한동안 부진한 성적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흐름에 힘입어 미분양분을 찾기 어려운 곳이다. 오는 10월 경의선 야당역(가칭)이 단지 앞에 신설될 예정이라 수요자들의 관심은 더욱 높아지는 추세다.

◆ 경의선 야당역이 도보 거리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 A27 1블록 '운정신도시 롯데캐슬 파크타운'은 지하 2층, 지상 23~29층 10개동, 전용면적 ▲59㎡ 87가구 ▲74㎡ 178가구 ▲84㎡ 811가구 등 1076가구의 대단지다.

오는 10월 단지와 300m 거리에 경의선 야당역이 신설될 예정으로 역세권으로 꼽힌다.

서상훈 롯데건설 분양소장은 "경의선 야당역이 도보 거리"라며 "분양가도 합리적으로 책정돼 빠르게 계약이 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견본주택에는 74㎡, 84㎡A·B 아파트 유닛이 마련됐다.

74㎡(30평형) 타입은 타워형으로 설계돼 넓찍한 거실 공간이 눈에 띄었다. 발코니 확장 시 제공되는 안방 안쪽 초대형 드레스룸은 세련된 실내장식으로 신혼부부들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20~30대 여성들이 흡족하는 모습을 보였다.

84㎡A(34평형)에는 주방 앞 팬트리를 비롯해 안방 길잡이장이 선택으로 제공됐다. 이 타입은 '방-거실-방-방' 구조의 4 bay 맞통풍 평면이라는 점에서 실용성과 편의성을 중시하는 40~50대 중장년층들에 큰 호응을 샀다.

84㎡B 타입은 유상옵션을 추가해 침실을 서재형 혹은 수납형으로 설계할 수 있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74㎡형과 비교할 때 딱히 차별화되지는 않아 아쉬움을 샀다.

◆ 분양가 3.3㎡당 800만원대부터

이 아파트는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아파트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3.3㎡당 최저 800만원대부터 분양가가 시작하며 평균 1000만원대다.

여기에 발코니 확장을 선택할 경우 ▲59㎡ 915만원 ▲74㎡ 1266만원 ▲84㎡A 1156만원 ▲84㎡B 1076만원이 추가된다.

분양가 10%는 2회 분납 조건이다. 1차로 전용면적 59·74㎡는 1000만원, 84㎡는 1500만원을 내고 한 달 내 2차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84㎡는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이 주어진다.

오는 2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9일 1순위, 30일 2순위 청약신청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5월 8일이며 계약 기간은 5월 13일에서 15일까지다.

견본주택은 경기 파주시 야당동 920번지 일대에 마련돼 있다. 입주는 2017년 10월 예정이다.

/윤정원기자 ymiddle@

우리카드 배구단, 김상우 감독 체제 우리카드는 지난 24일 서울 광화문 본사에서 김상우 감독 공식 취임식 및 선수단 출정식을 가졌다. /우리카드 제공

'호남고속철 입찰담합' 대림산업 등 5곳 적발

340억원 국고손실

호남고속철도 입찰 담합으로 300억원대의 국고 손실을 입힌 5개 건설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6일 호남고속철도 3-2공구 입찰에서 낙찰 업체를 미리 정한 뒤 투찰 가격을 서로 맞추는 방법으로 담합을 한 혐의로 대림산업과 포스코건설, 남광토건, 경남기업, 삼환기업 등 5개 건설사의 임직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발주한 2700억원 규모의 호남고속철도 3-2공구 수주액을 높이기 위해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림산업 직원인 윤씨 등 4명은 2008년 4월부터 4개월 동안 다른 4개 건설업계(포스코건설, 남광토건, 경남기업, 삼환기업) 임원 등을 상대로 공사를 양보해 주면 이미 수주한 다른 공사 지분을 양도하거나 하도급을 주겠다며 담합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대림산업은 공사 예정금액의 82.7%선에 입찰하면서 나머지 업체들에게는 이보다 2~4%포인트가량 높게 써내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균 공공공사 낙찰금액의 통상 약 70%인 점을 감안하면 12.7%포인트가량 높게 낙찰돼 340억원이 넘게 더 지급됐다.

한편, 지난해에도 검찰이 호남고속철도 19개 공구 중 13개 공구에서 담합을 적발, 대형 건설업체 14곳과 해당 회사의 영업담당 임원으로 근무한 14명을 기소한 바 있다.

/이신혜기자 yshin@

KB금융그룹

"대한민국 3천만 고객이 KB국민은행을 선택한 이유"

퇴직연금 수익률 은행권 1위
주식형 펀드 3년 수익률 20.2% · 판매고 1위

고객님이 주신 믿음, 수익률로 보답합니다

저금리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금융의 평생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1등 수익률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은행권 퇴직연금 수익률

은행별 펀드 판매잔고

• 등 수익률은 당행에서 판매하는 모든 주식형 펀드를 3년간 보유한 경우의 판매잔고 가중 평균 수익률로서 개별고객의 수익률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2014년 한국금융투자협회 기준)

A 12

작년 퇴직연금 운용 성적표 DC·DB 수익률 국민은행 1위

20 경제

市場 3년간 펀드 수익률 국민 20.2%로 나타나

증시 발목잡는 펀드환매… 3조3000억 순유출

15일 하루새 3224억원 최다
코스피, 8거래일 만에 약세

코스피가 봄 바람을 타고 상승랠리를 이어가지 국내 주식형 펀드에선 투자자금의 환매가 멈추지 않고 있다. 매번 국내 증시의 발목을 잡는 주식형 펀드의 환매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7일까지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3조3063억원의 자금이 순유출됐다.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인 1조610억원이 주가가 본격적인 상승 흐름을 탄 4월 1일부터 17일 사이에 빠져나갔다. 특히 이달 15일 하루에만 3224억원이 순유출됐다. 일일 기준으로 2012년 9월 이후 2년7개월 만에 최대치다.

펀드 전문가들은 "최근 주가 상승의 원동력인 외국인이 올해 5조3000억원 어치 주식을 순매수한 점을 고려하면, 국내 주식펀드 환매가 주가 상승을 억누르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상승랠리를 이어온 코스피가 지난 21일 8거래일 만에 약세로 반전된 것도 주식형 펀드 환매의 영향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투신권은 이날 2079억원 어치를 순매도하며 하락세를 주도했다.

올해 들어 국내 주식형 펀드 중 KB밸류포커스펀드에서 가장 많은 3251억원의 자금이 유출됐다. NHCA 1 5개레버리지인덱스펀드 2304억원, 한국투자네이게이터펀드 2151억원, 신영밸류고배당펀드 1307억원 등의 펀드 환매규모도 컸다.

대신에 중소성장주 펀드로는 자금이 들어왔다. 올해 메리츠코리아펀드와 현대인베스트먼트로프라이스펀드, 동양중소형고배당펀드, 유진인덱스알파펀드 등으로 자금이 유입됐다. 최근 들어선 KB 중·소형주 포커스펀드로도 돈이 몰리고 있다.

해외 주식형 펀드 중에서 중국본토펀드와 유럽펀드의 자금 순유입액이 올해 각각 6696억원과 641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동부차이나본토펀드와 삼성중국본토중소형포커스펀드, 삼성차이나 2.0본토펀드 등의 중국본토펀드로 연초 이후 300억~1000억원씩의 자금이 순유입됐다. 유럽펀드 중에선 슈로더유로증권펀드가 올해 4000억원의 돈을 빨아들였고, 알리안츠유럽배당펀드와 JP모간유럽대표펀드에도 소폭의 자금이 들어왔다.

업계 일각에서는 향후 펀드 환매가 국내 증시에 끼칠 영향력이 점차 약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 위기 이후 국내 주식형 펀드의 규모 자체가 작아져 펀드 환매액이 증시에 끼치는 영향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후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올해 들어 코스피 2000선 위에서도 투자 금액이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 과거와의 차이"라며 "국내 주식 펀드의 환매 강도가 전보다 약해졌고 저금리 상황으로 투자자들이 주식 자산의 비중을 늘릴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금감원 Q&A

카드 할부로 구입뒤 결제 취소하려면?

Q 음식가게를 하고 있는데 고객들에게 커피를 서비스하기 위해 커피머신을 카드할부로 구입했으나 커피머신에 문제가 있어 카드결제를 취소하고 싶습니다. 구제방법을 알려주세요.

A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철회권을 규정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할부거래법에서는 계약을 하거나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물건을 판매한 판매상 뿐만 아니라 카드회사에 대해서도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철회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단 할부거래법 적용대상이어야 합니다. 할부거래법상의 할부거래란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눠 지급하는 거래입니다. 그리고 카드할부거래에 대해서는 카드약관에서 거래금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철회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해 공급을 받는 거래 또는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복제가 가능한 CD 등의 포장을 뜯은 경우 등은 철회권 행사가 불가합니다.

철회권 행사는 계약서를 받은 날이나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는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판매상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카드할부의 경우에는 카드회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카드회원증의 뒷면을 보면 할부거래에서 중요한 철회권과 항변권에 대한 내용이 잘 요약돼 있습니다.

위 질의 건은 음식가게 주인이 영업을 위해(상행위를 위해) 커피머신을 구입하는 계약입니다. 음식가게 주인은 사업자이고, 또 가게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커피머신을 구입했다면 상행위를 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할부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아 유감스럽게도 철회권 행사가 불가합니다. 그렇지만 음식가게 주인이 자기 집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일반적인 커피머신을 구입한 경우라면 할부거래법이 적용되고 철회권 행사도 가능합니다.

/정리=김민지기자

LIG희망봉사단 고구마 모종 심기 봉사 LIG손해보험 청주지역 희망봉사단원들이 26일 충북 증평군 장연마을을 찾아 농촌 일손을 돕기 위해 고구마 모종 심기 자원봉사활동을 했다. /LIG손해보험 제공

美 FOMC 영향 제한적…1Q 실적발표 '주목'

[주간증시전망]

이번주(4월 27일~5월 1일)에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예정되 었다. 기업 어닝시즌도 이어짐에 따라 코스피가 최고 2300선을 돌파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오는 28~29일(현지시각) 열리는 FOMC가 현재 금리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어서 글로벌 유동성 전망은 밝다. 이에 국내 증시는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 기업의 실적발표가 변수가 될 예정이다.

오는 27일 삼성엔지니어링, S-Oil, 한국항공우주를 시작으로 ▲28일 KB금융, GS건설, LG이노텍, 롯데케미칼, 현대중공업 ▲29일 LG전자, 삼성전자, 두산, 제일모직 ▲30일 삼성에스디에스, 기업은행, NAVER, KT 등 주요 대기업의 실적발표가 이어진다.

앞서 실적을 발표한 SKC, LG화학,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등 대형주들이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 호조를 기록하면서 어닝서프라이즈에 불을 밝혔다.

고승희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이번주 코스피는 2140에서 2200선까지 상승할 전망"이라며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되면서 글로벌 유동성이 한국 시장에 집중됨과 더불어 1분기 기업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윤서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은행이나 자동차업종 상승여력이 남아있고, 전자와 화학, 증권업종도 좋은 성적을 유지하면서 대형주 주가가 더 올라갈 것"이라며 "코스피는 상승기조를 이어가면서 2200선은 충분히 돌파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코스피지수가 지난주 1.4% 상승하는 동안 2.4% 하락한 코스닥지수는 이번주 변동성이 확대되며 숨고르기를 이어갈 전망이다.

김정환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이 강력한 순매수를 이어가는 반면 외국인, 기관은 점차 고점에서 매도에 나서고 있다"며 "그동안 상대적으로 오르지 못했던 대형주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당분간 중소형주 중심의 코스닥 시장은 조정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도 "코스피 729개 기업 중 202개 기업이 전체 순이익의 90%를 반영하는 반면 코스닥은 1037개 기업 중 80개가 전체 순이익의 31%밖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코스닥 상장 기업이 실적발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에서 외국인의 투자심리를 제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보배기자 bobae@

외환銀, 달러ELS펀드 연 3~5%대 수익 달성

외환은행은 26일 달러로 투자하는 '달러 ELS펀드'를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달러ELS펀드'는 원화ELS상품을 달러로도 가입할 수 있게 설계된 상품으로 기본 구조는 같다.

상품은 S&P500, 유로 스탁스(EUROSTOXX50), 홍콩 항셍지수(HSCEI) 중 두 개의 지수를 선택, 그 지수가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면 수익률을 얻는 2인덱스 형태의 스텝다운(만기 3년, 매 6개월마다 조기상환) 형태다.

최초 모집기간은 29일까지로 고객은 기존 달러 외화예금(1년제) 금리 대비 6~3배 수준인 연 3~5%대의 수익을 제공받을 수 있다.

/박대한기자 alive@

삐띠 워모 행사장 바스통 부스에 바이어가 옷을 만져보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삐띠 워모 행사장 병문서 디자이너 부스에 바이어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디자이너 수우 부스에 바이어들이 디자인을 살펴보고 있다

세계로 通하는 K-패션, 유럽 주름잡다

2015 눈여겨 봐야 할 코리아 신예 패션 브랜드 BEST 3

K-팝, 한류 드라마, K-뷰티까지 한류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 발맞춰 개성과 장신함으로 뭉친 한국 신진 패션 브랜드들이 유럽에서 주목을 받으며 K-패션의 긍정적인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 패션 피플이 주목해야 할 한국의 신예 디자이너 브랜드들을 소개한다.

바스통
한땀 한땀 전제품 수작업 평범한 점퍼에도 장인정신

병문서
블랙 컬러에 창의성 더해 모던과 세련미 조화

수우
남·여 경계 허무는 디테일 한국미 깃든 섬세함 일품

◆완벽한 남성 아웃터 브랜드 '바스통(Bastong)'

27일 패션업계에 따르면 디자인 하나 하나에 의미를 두고 오래도록 입을 수 있는 편한 아웃터를 만들고자 하는 남성 아웃터 브랜드 '바스통(Bastong, 대표 기남해)'은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장인 정신이 담긴 브랜드다. 바스통의 제품은 모두 핸드 메이드로 한땀 한땀을 혼신의 힘을 기울여 제작되기 때문이다. 매 시즌 1~2개의 제품만 생산된다. 바스통의 옷들은 평범한 점퍼처럼 보이지만 까다로운 품질 기준과 치밀함으로 섬세하게 만들어져 그만큼 '완벽한' 상품으로 태어난다.

바스통은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남성복 전문 수주회인 제 87회 삐띠 워모(Pitti Uomo)에 연속 참가하며 어미 그 가능성을 높게 평가 받고 있다. 이번 삐띠 워모에서는 새로운 시즌에 맞춘 하우스 라인의 니트웨어와 셔츠를 선보여 글로벌 패션 업계 관계자에게 큰 호평을 받았다. 남성 정장으로 유명한 미국 폴 스튜어트(Paul Stuart)의 회장 마이클 오스트로브(Michael Ostrove)가 직접 부스에서 오더를 진행해 이슈에 오르기도 했다.

◆블랙의 모던함과 세련된 구조미, 병문서(Byungmun Seo)

서병문 디자이너의 브랜드 '병문서(BYUNGMUN SEO, 디자이너 서병문)' 역시 해외 시장에서 더욱 주목 받는 브랜드로 향후 패션 한류를 이끌어나갈 기대주 중 하나다.

독특한 구조의 실루엣, 창의적인 패턴 컷팅으로 도발적이면서 신선한 맨즈웨어를 추구한다. 다양한 구조의 패턴과 블랙 컬러가 주는 다채로운 텍스처의 조합을 통해 옷의 근본적 인 특성인 웨어러블(Wearable)과 창의성(Creative)의 밸런스를 맞춘 룩을 선보이고 있다. 이는 2015 서울패션위크 F/W 시즌 컬렉션과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열린 '삐띠 워모(Pitti Uomo)'에서 보여줬던 제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2013년 여름 파리 쁘띠 빡르시아유에서 열린 '후즈 넥스트(Who's Next)'에서 탁월한 실력을 낸 병문서는 두 차례 런던 패션쇼는 물론 세계 유명 패션 브랜드를 다루는 '낫 저스트 어 라벨(Not Just a Label)' 온라인 스토어에 입점 하는 등 외국에서 하이엔드 브랜드로써 명성을 쌓아가고 있다.

◆절제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수우(SUUWU)

흡사 건축과 같은 실루엣에서 느껴지는 절제되면서 시크한 매력. 남성복과 여성의 경계를 허무는 디테일이 주는 독특함으로 승부하는 여성복 브랜드 수우(SUUWU, 디자이너 박수우).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매년 2회 개최되는 삐띠 워모 행사장을 가득 메운 패션 관계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박수우 디자이너의 수우 컬렉션에는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모던하고 미니멀하게 담겨 있다. 수우는 코트나 재킷의 라펠에서 느껴지는 다양한 구조적인 조형미가 두드러진다. 남성복의 가장 큰 디테일인 라펠을 여성복에 접목시켜 페미닌하면서도 매니시한 매력이 동시에 느껴진다.

수우의 옷을 산 여성들이 20년 뒤에 그 옷을 꺼내 입었을 때도 전혀 어색함이 없는 디자인'을 추구하는 박수우 디자이너의 철학이 담겨 있다. 수우가 글로벌 명품 브랜드가 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다.

수우는 독일 스테이션 베를린에서 열리는 패션전문박람회 '프리미엄 베를린(Premium Berlin)'에서 수수한 멋과 고급스러운 컬렉션으로 포르투갈, 독일 지역의 해외 바이어들의 눈길을 사로 잡았다. 2015 서울 패션위크 컬렉션에 백우 하지원이 직접 먼저 관관 의지를 밝히고 방문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한국 젊은 디자이너가 패션의 본고장 유럽서 주름잡다

바스통, 병문서, 수우 등 스타트업 브랜드는 글로벌 패션 트렌드를 가늠할 수 있는 해외 유명 패션 수주회에서 한국만의 독창적인 멋과 감성을 강조한 제품들이다. 전 세계 바이어들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그야말로 '하이라이트'를 받고 있다. '삐띠 워모'와 '프리미엄 베를린'에 모여든 전세계 패션 업계 관계자들은 이들의 신선한 감각과 시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 하고 있다.

'삐띠 워모'는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매년 2회 열린다. 1972년에 시작된 역사가 깊은 행사로 1100여개의 브랜드와 2만 여명의 바이어, 1만6000여명의 기자가 참석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남성복 전문 수주회이다. 유럽 최고 패션박람회 '프리미엄 베를린' 역시 전세계 패션 업계 종사자들이 모여드는 영향력 있는 트레이드쇼다. 이들 수주회에서 브랜드들은 부스를 만들어 그들만의 상품을 선보이고 바이어들은 소비자들을 사로잡을 만한 디자인을 골라 거래하는 등 실질적인 비즈니스의 장이다.

론칭 된지 5년이 채 되지 않은 이들 3개 브랜드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신진 디자이너 판로개척 지원 사업'에 선정 됐다. 해외 수주회 참가지원과 함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비즈니스 활동, 전문가로부터 각 브랜드에 맞는 전략적인 사업 컨설팅도 받았다.

이를 통해 이번 87회 삐띠 워모에서 '바스통'은 기존 거래처는 물론 신규 바이어가 부스를 찾아 총 11만 달러의 계약 상담 실적을 올렸고, '병문서'는 상담 실적 6만2000 달러를 기록, 이탈리아 주요 쇼룸 바이어들과의 계약을 진행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었다. '프리미엄 베를린(Premium Berlin)'에 참가한 '수우'는 포르투갈, 독일 지역의 유통업체 등과 17만 달러의 계약상담 실적을 냈다.

◆해외시장 개척할 육성·지원 더뤄져야

K패션이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 나가려고 꿈틀거리는 시점에서 안 팎으로의 꾸준한 지원이 성공의 관건이다. 찰나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이 아닌 꾸준한 영향력을 갖출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장기적 투자와 육성이 절실하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올해 가능성 있는 신진 브랜드들의 삐띠워모(이탈리아 피렌체), 프리미엄 베를린(독일 베를린), 트라노이 우먼(프랑스 파리), 코트리(미국 뉴욕), 중국 심천 국제 브랜드 페어 등 세계 각국에서 개최되는 수주회 참가 지원을 한다. 패션 산업 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브랜드 운영실태 진단, 맞춤형 브랜드 유통 컨설팅, 실질적 수주 유도를 위한 비즈니스 관리 등 다방면으로 지원 할 예정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5년도 해외 수주회 참가 브랜드 모집 일정은 오는 27~29일(마감)이다.

이 외에도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국내 패션 브랜드의 시장 경쟁력 강화와 패션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글로벌 패션행사인 '뉴욕 패션위크'와 연계한 '콘셉코리아 패션쇼(Concept Korea Fashion Show)'는 패션의 메카인 뉴욕에서 시즌별 패션쇼를 열어 미국 시장 진출 의지와 역량을 갖춘 디자이너에게 현지 마케팅-브랜드 별 쇼룸 운영을 지원한다. 미국 시장 진출 의지와 역량을 갖춘 한국의 대표 스타 디자이너를 발굴해 미국 시장 내 한국 패션 브랜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지도를 확대하는 데에 앞장서고 있다.

/김태균기자 ktk@metroseoul.co.kr

한전-자회사, 정부지침 3중고에 허리 휜다

<성과공유 지역협력 나홀로 이주>

해외자원개발 수사 영향' 성과공유 등 실효성 의문

지방이전 – 가정불안도 숙제 예산·인프라 부족 골머리

한국전력과 관련 자회사가 성과공유제·지역협력 등 각종 '공무지침'과 가정불안정 등 삼중고에 몸살을 앓고 있다. 해외자원개발 수사 여파로 한국석유공사나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이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한전이 에너지공기업의 '맏형'이 됐다. 한전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선봉장으로 여러가지 지침을 달성해야하는 막중한 위치에 있지만 나홀로 이주에 따른 불안감 등 부담만 가중돼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것이 한전과 발전자회사 관계자들의 하소연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다자간 성과공유제 자율 협약'에 1차 공공기관으로 한전을 비롯해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이 지정됐다.

성과공유제는 대기업과 협력사가 원가 절감, 기술개발, 판로개척 등 공동 협력 활동을 통해 발생된 성과를 사전에 협의한 방법으로 상호 분배하는 제도로 정부의 중점 추진사업이다.

공기업 안팎에서는 한국철도공사 등을 제외하고 공기업 중에선 한전과 자회사만 성과공유 협약 대상이 된데 대해 쏠림현상이 심한 것이 나타나는 지적이다. 한전에게만 정부 지시가 몰리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전언이다. 한편에선 부채를 줄여 경영정상화에 나서라고 압박하고 성과는 하청협력사와 공유하라고 하면 언제 돈을 벌어 부채를 갚을 수 있냐고 정부의 탁상행정에 불만을 품고있다. 한 에너지 공기업 관계자는 "자원개발 비리를 캐면서 사실상 한전만 이번 수사선상에서 자유롭지 않나"며 "정부가 한전과 자회사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줄세우기에 들어간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한전과 자회사는 이전 지역에서 중소기업 지원, 자원봉사 등 각종 정부지시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우선 경남 진주시로 이전한 남동발전은 정부가 지정한 57개 중소기업과 3개 중견기업 등 60개사에 매년 예산에 비례해 일정액을 지원한다. 또 경상대, 대구대 등 지역 대학과의 산학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남동발전은 실제 올해 신입사원 채용인원의 9%를 지역인재로 채우고 진주시와의 산학커리어에 매년 10억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진주 시내에서 친환경운동 등 캠페인도 벌인다.

작년 말 전남 나주로 이전한 한전과 자회사 한전KPS, 한전KDN 등은 지역 연구개발(R&D)에 연간 100억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오는 8월 충남 태안군으로 옮기는 서부발전도 맞춤형 태양광사업 개발 시 서부발전의 발전소 운영과 건설 노하우를 협력사에 공개·전수하는 지원안을 계속 시행할 방침이다.

한전 발전자회사 한 고위관계자는 "회사가 지방으로 오면서 무조건 지역과 시너지협력 효과를 내야 하다는 지침이 떨어졌다"며 "그래야 정부의 평가를 잘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정부가 공공기관 평가를 명목으로 공기업의 높은 지역협력 성과를 요구하고 있다는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지방이전에 따른 가정불안정도 문제다. 도전순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전 등에게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전의 가족동반 이주율은 23.1%(354명)였다. 한전KPS 27.3%(125명), 한전KDN 18.3%(169명) 등도 동반이주율이 저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사나 공기업 이전으로 동반이주율은 계속적인 숙제"라면서 "그러나 예산과 각종 인프라 부족으로 동반거주를 유도할 뾰족한 수가 없다. 우리도 내려올 때 이전비로 100만원만 받고 왔다"고 토로했다. /송정훈기자 @metroseoul.co.kr

삼성전자 갤럭시S6와 갤럭시S6 엣지가 출시 15일째를 맞은 지난 24일 오후 4시 의정부역 지하상가 휴대폰 관련 대리점들은 비교적 한산한 모습이다.

썰렁한 매장… 구매자 찾기 '하늘의 별따기'

[르포] 갤럭시 S6 출시 보름… 주말 판매점 가보니

찾는 사람도 반기는 사람도 없었다. 봄바람이 살랑이던 지난 24일과 25일 이틀간 경기도 의정부역 지하상가와 서울 왕십리역 쇼핑몰 휴대폰 매장을 둘러봤지만 상담하는 손님조차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썰렁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S6와 갤럭시S6엣지를 출시한 지 2주째, 시장 반응은 일부 언론의 보도와는 달리 현실은 조용했다. 이틀에 걸쳐 30개 매장을 방문한 결과 제품을 구매하는 손님을 찾는 건 하늘의 별따기나 마찬가지였다.

의정부역 지하상가는 전철역 승강장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어 유동인구는 많지만 매장을 방문하는 손님은 찾기 힘들었다. 왕십리역 휴대폰 매장은 젊은 고객들이 이따금 매장을 방문했지만 보조금에 대해 묻어 본 뒤 발길을 돌렸다.

언론과 달리 현실은 조용 상인 "아이폰6보다 못해"

현장에서 만난 A매장 상인은 "일부 신문과 방송에서 잘팔린다고 하는데 이런 언론들은 기자처럼 현장을 제대로 둘러보지 않고 앉아서 기사를 썼던지 삼성전자와의 관계 때문에 호의적인 기사만 쓴 것 같다"며 "미국에서 잘 팔리는 걸 착각하고 쓴 거 아니냐"며 농담을 건냈다.

B매장 점주 조 씨(33)는 "(다른 제품은 판매되지 않아) 갤럭시S6나 아이폰6를 하루에 한 대씩만 판매해도 장사 잘한 것"이라며 "갤럭시S6 흥행을 기대했지만 아이폰6 출시때 보다는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폰 사용자는 브랜드 충성도가 높아 제값을 주고 구매하는 고객이 많은 편"이라며 "갤럭시의 경우 과거 약정 기간이 지나면 상당 금액을 지원 받았던 경험이 있어 구매를 꺼리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결국 삼성전자의 전략폰 갤럭시S6 시리즈도 이동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지 못한 것이다. 이는 최근 공개된 판매 수치들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일 애틀러스리서치앤컨설팅(대리점과 판매점 수치만 적용)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갤럭시S6와 갤럭시S6 엣지판매량이 7만9586대로 나타났다. 아이폰6·6플러스는 3만5000대 판매됐다.

업계에서는 아이폰6 시리즈가 지난해 10월 출시 직후 6일간 25만대가 팔린 반면 갤럭시S6 시리즈의 판매량은 17만대 수준에 그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황석준기자 @

LG '올레드 TV', 美 에디슨 어워드 금상

LG전자는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TV가 미국 최고 권위의 발명상인 에디슨 어워드에서 금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측에 따르면 국내 가전 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수상한 LG전자 제품은 55형 올레드 TV(모델명 55EC9300, 사진)를 비롯해 에코 하이브리드 건조기(모델명 DLHX4072V), 아트쿨 갤러리 에어컨(모델명 LA090HVP) 등 3개다. 각각 금상, 은상, 동상을 받았다.

올레드 TV는 환경 분야인 에디슨 그린 어워드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이 제품은 유해물질 배출을 줄여 규격인증기관 UL사의 그린가드 인증을 받은 최초의 TV다.

에코 하이브리드 건조기는 에너지 관리 부문에서 은상을 수상했다. 북미에 출시된 건조기로는 처음으로 히트펌프를 적용했다. 기존 건조기에서 버려지던 배기구의 열을 재활용해 전력 소비량을 최대 53%까지 줄였다. 가정용 벽걸이 에어컨 아트쿨 갤러리는 주거 환경 부문에서 동상을 받았다. 사용자가 사진이나 그림을 제품 전면부에 넣어 액자처럼 벽에 걸고 사용할 수 있다.

조주완 LG전자 미국법인장은 "차별화된 기술과 디자인 경쟁력을 갖춘 제품으로 미국 가전 시장을 지속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정기자 @

삼성전자, 브라질에 창조경제혁신 모델 전파

대구 센터 - 안프로텍과 MOU

삼성전자와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는 24일(현지시간) 브라질에서 브라질 혁신기업진흥협회인 안프로텍(Anprotec)과 창조경제혁신센터 모델 전파와 브라질 청년창업 스타트업 육성 협력을 위한 상호 협약(MOU)을 체결했다.

브라질리아의 브라질 과학기술부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김선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장, 프란실리니 프로코피오 가르시아(Francilene Procopio Garcia) 안프로텍 대표, 김정환 삼성전자 중남미총괄이 참석했다.

삼성전자는 삼성 브라질 연구소에서 브라질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교육과 연구 개발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5년간 5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다. /조현민기자 @

왼쪽부터 김선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정환 삼성전자 중남미총괄, 알도 레벨로 과학기술부 장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프란실리니 프로코피오 가르시아 안프로텍 대표. /삼성전자 제공

SKT 결합상품 가입률 '최고'…56만명 증가

원가이하 요금정책 등 적자 감수한 공격 마케팅 효과

단말 유통법 시행 후 시장 1위인 SK텔레콤이 유무선 결합상품 시장에 주력하며 초고속인터넷 등에서 과감한 마케팅으로 결합상품 가입자를 급속도로 늘려가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 중 SK텔레콤이 점유율 50%의 무선 가입자를 기반으로 초고속 인터넷 재판매를 통해 유선 시장에서 가입자를 모으고 있다. 그 방법으로 자사 가입자 묶어두기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으며 실제로 결합상품 가입자가 같은 기간에 이통 3사 중 가장 큰 비율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따르면 SK텔레콤의 결합상품 가입자는 2014년 기준 전년대비 56만명이 증가했다. 이는 KT와 LGU+가 같은 기간 동안 각각 38만명 감소, 22만명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또한 전체 가입자 중 결합상품을 사용하는 가입자 비율이 다른 통신사와 비교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KT와 LG유플러스가 각각 작년에 30%, 40%를 기록한데 반해 SK텔레콤은 57%에 해당하는 가입자가 결합상품을 이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관계자는 타 이통사보다 SK텔레콤 가입자가 늘고 있는 것은 원가 이하의 요금 정책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SK텔레콤은 올들어 무선 2회선 결합 시 초고속 인터넷을 무료로 제공하는 신규 결합상품을 선보였다. 결합상품 구성을 살펴보면 SK텔레콤의 초고속 인터넷 재판매 시 원가는 가입자당 재판매 대가와 마케팅 비용을 고려할 때 1만6000원 수준인데 결합할인에 따른 판매가격은 1만3000~1만4000원대다.

경쟁사의 한 관계자는 "단통법 이후 침체된 시장에서 SK텔레콤의 초고속 인터넷과 IPTV에만 집중하는 방식의 결합할인이 이같은 상황을 만들고 있다"며 "이럴 경우 경쟁사업자는 견디지 못하고 단시간 안에 시장에서 뒤쳐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2년 SK텔레콤 초고속 사업 손익을 살펴보면 2543억원의 매출을 거둔 반면 재판매 대가로 2042억원을 지출했다. 마케팅 비용과 요금할인을 고려하면 초고속 사업은 적자를 감수하고도 공격적인 마케팅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적자를 감수한 원가 이하 요금정책에 대해 SK텔레콤측은 "결합할인 요금제는 강력한 자산인 가입자 기반을 활용해 당사의 경쟁력 자산화를 이끄는 핵심 수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민영기자 hm0108@metroseoul.co.kr

SKT '스마트로봇 코딩스쿨' 남미 본격 진출

SK텔레콤의 로봇을 활용한 창조경제형 인재개발 교육 솔루션인 스마트로봇 코딩스쿨이 아시아, 유럽을 넘어 남미 시장에 본격 진출하는 성과를 올렸다.

SK텔레콤은 24일 브라질의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브라질 1위 통신사인 세르콤텔에 스마트로봇 알버트 수출과 이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교육프로그램인 스마트로봇 코딩스쿨 솔루션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관계자들이 스마트로봇 코딩스쿨 솔루션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SK텔레콤 제공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세르콤텔에 올해 스마트로봇 5000대를 수출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8년 4월까지 3년간 총 3만대를 수출한다. 또 파라나주 102개 유치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스마트로봇 코딩스쿨'을 1년간 운영하게 된다.

특히 지난 해 대만 진출을 시작으로 스페인, 프랑스 등 선진국에도 수출되며 글로벌 진출을 확대해왔다. 최근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순방 기간에 아랍에미리트(UAE)의 아부다비 개발실과 스마트로봇 코딩스쿨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창조경제형 글로벌 교육 솔루션으로 세계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하민영기자

자유자재 휘는 신기한 액션캠 'PIC'

최근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고프로, 폴라로이드 큐브, 소니 X1000, 샤오미 Yicamera 등 다양한 가격의 액션캠이 인기를 끌고 있다.

자전거, 임벽등반 등 역동적인 활동 시 액션캠처럼 동영상과 사진 촬영이 용이한 카메라를 찾기 힘들다. 기존의 액션캠들은 장착 위치에 한계가 있다. 거치대를 따로 구입하지 않으면 장착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신개념 트렌디 카메라 PIC에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 준다. 디자인 회사 바우드(BOUD)가 만든 PIC은 자유자재로 거치할 수 있는 플렉서블 액션캠으로 동영상, 사진 촬영이 가능하며 무엇보다 패션 아이템으로도 손색이 없다.

PIC은 손목 발목이나 자전거, 가방 등에도 묶을 수 있다. 개성 있는 외모에 플렉서블한 바디까지 갖추어 기존 카메라들과는 전혀 다른 멋을 연출한다. 7가지 독특한 캐릭터로 구성된 PIC은 캐릭터별로 5가지 색상으로 나뉘어 소비자의 선택폭을 대폭 늘렸다.

720p 30프레임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며 5.0 메가픽셀 카메라가 장착돼 선명한 화질과 124° 와이드 앵글을 지원한다. 300mA 배터리를 사용해 1시간 동안 연속 사용이 가능하며 충전은 USB로 가능하다. 16G 메모리와 생활방수, 블루투스 기능을 갖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인터넷 사이트 인디고고(http://igg.me/at/flexcampic)를 통해 대북 후원을 지원 PIC은 5월 웹사이트(www.flexcampic.com)로 선주문을 받고 8월에 정식 출시할 예정이다.

/김은총기자 fun@

금호산업 인수가 1조원까지 껑충

광주·전남 '승자의 저주' 우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명운이 걸린 금호산업 매각을 위한 절차가 다음 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매각 가격은 28일 드러날 예정이다. 광주·전남 지역에 뿌리를 내린 회사 성격상 지역민들의 관심 역시 고조된 상태다. 호반건설이라는 전남 출신 기업이 인수전에 뛰어들며 관심은 더욱 높아졌다.

금호산업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57%, 약 1900만주를 사들여야 한다. 현재 주가인 2만원으로 계산할 때는 4000억원을 밑돈다. 여기에 성장 가능성과 아시아나 항공 등 인수 프리미엄이 더해져 5000억~6000억원이 적정선으로 거론됐다.

하지만 호반건설 김상열 회장이 인수전에 뛰어들면서 경쟁이 가열돼 현재는 1조원까지 오르내리고 있다. 1조원이 되려면 1주당 가격이 5만원을 넘어야 하는데 거의 불가능하다. 프리미엄을 더하더라도 1조원은 무리라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금호그룹 관계자 역시 "호반건설이 1조원의 자금능력이 된다고 하는데 이에 금호산업은 특별한 위기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전했다.

호반건설 김 회장이 과연 얼마를 써낼 것이냐가 관심사다.

만약 8000억원을 넘어서는 금액을 제시한다면 호반건설은 금호산업을 자지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시장에 확인시키며 박삼구 금호 회장을 궁지로 몰아넣을수 있다. 하지만 6000억원 정도의 금액을 쓴다면 되레 금호를 도와주는 격이 될 수 있다. 본입찰 참여 자격이 있는 다른 사모펀드들을 밀어내 준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상열 회장이 박삼구 회장을 제치고 금호산업을 가져오려면 박 회장이 감당할 수 없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것 외에도 몇가지 장애물을 해결해야 한다.

가능성은 낮지만 본입찰이 유찰되면 기업평가기관의 금호산업에 대한 평가가치를 토대로 박삼구 회장이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주가 상승이나 높은 낙찰가로 박삼구 회장이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면 채권단에 요청해 제3자를 우선 매수권자로 지정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호반건설도 금호산업을 놓치게 되고 금호산업도 더 이상 지역 향토기업이 되기 어려워진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남소라기자 10sora@

"그룹 역량을 모아 5G시대 주도할 것"

황창규 KT 회장, KT리더십아카데미서 주문

황창규 KT 회장이 5G 시대 개막을 위해 그룹의 역량을 총 동원해 줄 것을 주문했다.

KT는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1박 2일 동안 강원도 원주의 KT리더십아카데미에서 KT 및 그룹사 임원 242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룹간 소통 강화와 성과 확대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황 회장은 워크숍 첫날 직접 강연자로 나서 KT그룹 임원들에게 5G 시대 개막을 위해 그룹간 시너지를 당부했다. 황 회장은 "5G는 국민들의 생활을 완전히 변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의미한다"며 "5G 시대 개막을 위해 KT뿐 아니라 모든 그룹사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확실히 기술 차별화와 고객 중심 사고를 통해 고객이 직접 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술 차별화, 고객 중심 사고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라도 확투철리 임파워먼트가 기업문화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회장은 워크샵을 마치면서 "KT는 5G 시대를 주도할 능력과 자원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며 "이곳 강원도에서 3년 뒤 열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5G의 가시적인 모습을 세계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KT그룹 임원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문경기자

신세계 면세점 입찰 앞두고 '남대문시장 살리기'

신세계, 상생 점수 따려고 중구청과 협약?… 익숙한 돈도 달랑 '1억원' 그쳐

성균관대 동문 최창식 구청장·성영목 신세계DF 대표 1년반새 MOU만 세번

메트로 창간 13주년 기획 〈相生〉 ◆ 자영업을 살리자

600년 전통의 국민시장 '남대문 시장 살리기'가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지만 중구청과 신세계의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 남대문 시장 활성화는 서울시장이 바뀔 때마다 공약 사항이지만 상인들은 남대문 시장 심취에 좋아졌다거나 개선됐다는 것을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매출은 점차 줄어 현재 임대료도 못낼 상황이라는 상인들이 태반이다. 점포수 1만여 개, 종사자수 5만여 명, 하루 유동인구 40만~50만, 취급품목 1700여 종의 남대문 시장의 세계 일류 명품 시장 도약 꿈은 요원한 걸까. 상인들은 그래도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틈바구니 속에서 굳건한 생존력을 보이고 있다. 자영업자중에서도 가장 영세한 전통시장 상인들을 도구로 '상생 쇼'에 그치는 전시 행정만이라도 사라진다면 명품 시장에의 꿈은 한걸음 다가설 수 있을 듯 싶다. <편집자주>

지난 23일 신세계그룹(부회장 정용진)은 서울 중구청, 남대문 상인회와 함께 '남대문 시장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맺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죽어가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시설개선, 홈페이지와 SNS를 통한 홍보, 문화산업 양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이를 위한 예산은 신세계그룹에서 지원하기로 약속한 1억원이 전부다.

26일 서울 중구청(구청장 최창식) 관계자는 "현재까지 신세계에서 1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 외에 추가적인 예산 확보는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3단체가 각각 노력해 서로 시너지 효과를 통해 남대문시장을 '아시아 최고의 문화관광 메카'로 만들 계획이지만 목표만 있을 뿐 구체적인 예산과 실행방안은 애매한 상태다.

남대문시장에서 구두를 판매하는 상인 최모씨는 "1억원을 갖고 무슨 남대문시장을 아시아 최고의 문화관광지로 만든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시큰둥해 했다. 남대문시장 상인회에 따르면 가장 시급한 공중화장실 공사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최창식(64) 서울 중구청장은 성균관대 동문 후배인 성영목(60) 신세계조선호텔 대표 겸 신세계디에프대표와 최근 1년 반 사이 남대문시장 활성화를 이유로 MOU를 세 번씩이나 계결하며 동문 밀어주기 의혹마저 얻고 있다.

2013년 10월 최 구청장은 당시 신세계백화점 대표로 있던 성영목씨와 '전통시장 상생발전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이듬해 9월 성씨가 신세계조선호텔 대표로 자리를 옮긴 후 다시 남대문시장 활성화를 위한 MOU를 맺었다. 그리고 6개월이 채 안된 이달 23일 성씨가 새 대표로 임명된 신세계디에프와 남대문시장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세번째 MOU를 체결했다. 상인들이 체감도 못하는 남대문살리기 MOU를 18개월 동안 3번이나 체결한 것이다.

의류 판매 상인 박모씨는 "남대문시장을 살린다는 소리는 몇 년 전부터 들었는데 체감되는 것은 없다"며 "그냥 자기들끼리 쥐는다고 하는 것 같은 데 우리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상인은 "매번 정권 교체 시기나 구청장 등이 새로 취임할 때면 남대문시장 활성화를 들먹이는데 정작 개선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특히 면세점 입찰을 앞두고 이달 체결한 MOU에 대한 업계의 시선은 곱지 않다. 업계 한 관계자는 "6월에 있을 서울 시내 면세점 유치를 앞두고 면세점 브랜드인 신세계디에프를 부각시키기 위한 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신세계디에프는 신세계그룹이 서울 시내 면세점 유치를 위해 독립 사킨 법인으로 4월 15일에 법인등기를 했다. 대표이사인 성영목씨는 신세계조선호텔의 대표다. 신세계조선호텔은 지난해 약 160억원의 영업손실을 봤으며 이자보상배율은 -2.4배로 부채에 대한 이자를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이다. 6월에 있을 서울 시내 면세점 입찰 평가기준에는 경영능력, 사회공헌도와 상생협력 노력이 각각 30%를 차지한다. 업계 관계자는 "성 대표의 경영 능력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상생이라는 이름으로 점수를 따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 막 설립된 신세계디에프와 경영부진에 빠진 신세계조선호텔이 남대문시장을 살리는 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유선준기자 rnesys@metroseoul.co.kr

남대문시장 외국인관광객 유치 협약식 2015. 4. 23.

남대문시장 외국인 관광객 유치 협약식. 최창식 서울 중구청장, 문남엽 남대문시장 상인회장, 성영목 신세계조선호텔 대표이사겸 신세계디에프 대표이사(사진 왼쪽부터)는 성균관대 동문으로 최근 1년 6개월 새 '남대문 살리기' 명목으로 3번이나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신세계 제공

홈플러스(사장 도성환)는 산지 가격인하로 저렴해진 등심, 앞지 등을 포함한 한우 전 품목 값을 30일부터 5월 6일까지 최대 30% 더 내린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국 140개 모든 점포와 온라인마트(www.homeplus.co.kr)에서 진행된다. /홈플러스 제공

11번가, 말레이시아 오픈마켓 진출

SK플래닛(대표 서진우)의 오픈마켓 11번가가 말레이시아 시장에 진출했다.

SK플래닛은 지난 24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11street 론칭 행사를 하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출시와 함께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SK플래닛은 지난해 10월 말레이시아 1위 이동통신사 셀콤 악시아타와 함께 합작법인 셀콤 플래닛을 설립하고 6개월간 셀러 모집과 사업 인프라 확충을 위한 준비 작업을 벌여왔다.

말레이시아는 높은 인터넷 보급률과 스마트폰 보급률로 온라인 커머스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가중 하나다.

"왕서방 잡아라" 유통가, 마케팅 각축전

中노동절 특수… 알리페이 결제 시스템 도입등 분주

유통업계가 '5월 대목'을 맞아 들썩이고 있다. 중국 노동절(4월 30일~5월 4일)과 일본 골든위크(4월25일~5월6일) 등 쇼핑 대목을 앞두고 '큰손 관광객' 잡기에 나섰다.

26일 롯데백화점은 업계 최초로 아울렛 서울역점·파주점 등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7개 점포에서 알리페이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

알리페이 시스템은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려받고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 계좌를 연결시킨 다음, 앱의 바코드만으로 이용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중국인 고객은 기존 결제수단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으며 세금 환급 절차도 간소해진다고 백화점은 설명했다.

현대백화점은 노동절을 맞아 중국인 VIP 관광객 대상 프로모션인 '웰컴 어게인(Welcome Again)'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내국인 대상 VIP 관리 프로그램을 중국인 관광객에 처음 도입하는 것. 최근 중국인 관광객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식품에 대한 혜택을 늘린 것이 특징이다.

VIP 프로그램은 우수 고객 'TCP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 연중 진행한다. 실버·골드·다이아몬드 3개 등급으로 구성됐다. 5000만원 이상, 4000만원 이상, 1억원 이상 구매할 경우 각 등급별로 상품 케이크의 편지, 신년 선물, 발렛 주차 서비스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최근 몇 년 새 강남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만큼 기존 방문 고객의 재방문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국인 고객들에 준하는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확보해 쾌적하고 편리한 쇼핑환경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관광공사는 노동절과 골든위크 기간 중국과 일본에서 모두 18만명이 한국을 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노동절 기간 한국을 찾는 중국인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6% 늘어난 10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김보라기자

갑질논란 본죽, 진실공방

본가협 "수익원 투자 매장 전환 강요, 불응시 계약 해지 통보"
본사모 "권리금 노린 일부 점주 주장 … 동종 브랜드 점주 피해"

갑질 논란에 휩싸인 죽 전문 프랜차이즈 업체 '본죽'이 해지 가맹점과 현재 매장을 운영 중인 가맹점주 간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본죽가맹점협의회(이하 본가협)는 지난 10일 본죽을 운영하는 본아이에프(대표 김철호·사진) 본사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었다. 본가협은 본아이에프가 계약 10년차 매장 점주에게 본죽&비빔밥카페로의 가맹점 전환을 강제로 요구하고 이에 불응 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본가협은 2005년 다음 카페에서 시작된 본죽 가맹점주들의 모임으로, 현재 해지 가맹점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본가협에 따르면 10년 차 가맹점은 85개로 서대문점·원주단구점·정릉리점·김포북변흥플러스점·부천삼동점·천안이마트점 등이 본사로부터 가맹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양천구청점과 범계점은 카페 전환 강요를 받아 계약을 포기하고 타 브랜드 죽 사업으로 전환했으나 본사가 경업금지를 걸어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본가협 김대훈 회장은 "본사가 가맹계약 10년차 매장 점주 중 월 매출이 3000만원 이상 되는 매장을 대상으로 기존의 상권을 포기하고 수억원의 투자금을 들여야 하는 비빔밥과 죽을 같이 취급하는 본죽&비빔밥 카페로 매장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불응 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본사가 주도권을 쥐고 기존 상권을 포기하게 만든 뒤 수억원대의 재계약 비용 등을 강요했다"며 "가맹점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본사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본사와 본죽 가맹점주들의 모임인 본사모(본죽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는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2012년 발족한 본사모는 전국 1300여개 본죽 매장을 운영하는 가맹점주들의 지역별 대표 모임이다.

본사모 안상준 3기 회장(회장)은 "이번 논란은 터무니없는 권리금을 받고 싶어하는 일부 점주들이 뜻대로 되지 않자 벌어진 일"이라며 "이로 인해 동종 브랜드를 운영하는 점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가협이 2005년도 발족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 없이 소수의 가맹점주들이 주도하는 일방적인 모임"이라면서 "본가협 회원들과의 만남을 몇 차례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본사 측도 "대다수의 가맹점주들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잘 다져왔고, 이는 85개 10년차 가맹점 중 81개의 매장이 재계약을 한 사실로도 알 수 있다"며 "경쟁사 브랜드로 전환한 일부 가맹점의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본가협 김대훈 회장은 "본사모가 가맹점주들이 뽑은 대표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소수 몇 개 매장이 선출돼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가맹점주 대부분이 모른다"며 "현재 본가협 카페 모임 회원은 600여명으로 오히려 본가협이 본죽 가맹점을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본가협은 본사가 인정하는 공식 모임을 만들기 위해 정식 가입신청서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지난 24일 본가협에 가입된 피해 점주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시는 가맹점주들이 불공정 피해를 입을 경우 자문을 제공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고발·법적 분쟁 등을 돕고 있다.

서울시 이혜포 주무관은 "본죽 해지 가맹점주들을 간담회를 1차로 가졌지만 아직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조속한 확인을 통해 문제를 원활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illegible] 21cen[illegible]@metroseoul.co.kr

/롯데마트 제공

"30대, 50대보다 건강식품 더 찾는다"

건강식품을 찾는 연령이 점차 낮아지면서 30대의 건강식품 소비력이 50대를 추월했다.

26일 롯데마트(대표 김종인)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건강식품(홍삼·비타민·유산균 등)의 연령대별 매출을 살펴본 결과 기존 주 소비층이던 50대의 구매 비중은 매년 감소하고, 20~30대 젊은층의 구매 비중이 증가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에 가장 매출 비중이 높았던 50대는 2013년 40대 고객에게 주 소비층의 자리를 내줬다. 지난해에는 30대 고객에게 역전 당했다. 회사 측은 "최근 잦은 야근과 회식 등으로 건강을 챙기기 쉽지 않은 직장인들이 늘면서, 피로 회복과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홍삼·비타민·유산균 등의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illegible]기자 [illegible]

이랜드주니어 '몰티'로 재탄생

이랜드그룹(회장 박성수)은 아동브랜드 이랜드주니어를 스포츠 라이선스 브랜드 '몰티(MOLLTI)'로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

몰티는 많은(many)이라는 뜻의 이탈리아어 'molti'에 알파벳 철자 L하나를 추가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 받는 브랜드이자 모든 신(新)대들이 원하는 브랜드가 되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몰티의 타깃은 5~16세 아이들이다.

앞서 이랜드는 2012년부터 스포츠 아동복 시장조사를 통해 고객 분석 및 상품 준비를 진행해왔으며, 지난 1년 간의 테스트 운영을 통해 상품 검증을 마쳤다.

'헬스앤 키커스 180' 출시

애경(대표 고광현)이 만든 프리미엄 식품브랜드 헬스앤이 어린이 성장 발달에 도움을 주는 영양식품 '키커스 180'을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헬스앤 키커스 180은 3가지 특허 성분을 주로 함유해 어린이의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계란 43개 분량의 난황에서 추출한 성장특허성분인 본펩(Bonepep)과 뉴질랜드 청정 젖소 초유 100ml에서 추출한 성인인자 성분 IGF-1가 함유됐다. 성장특허성분 CBP와 성장에 필요한 칼슘과 미네랄의 흡수 촉진을 돕는 레반DFA 등을 1포에 함유했다.

도미노 시즌모델 한그루

도미노피자(대표 오광현)는 새로운 광고모델로 한그루(사진)를 발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한그루는 여성스럽고 사랑스러운 비주얼로 건강하면서 신선한 이미지를 선보인 신예 배우다.

도미노피자 관계자는 "배우 한그루가 도미노피자의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대중에 전달하는 동시에 고객과 친근하게 소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 이번 시즌 모델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벌써 샌들이"… 신발 멀티숍, 여름 장사 시작

예년보다 이른더위 예상
샌들 입고 시기 앞당겨

신발 멀티숍 업계가 올해도 어김없이 더위가 예상됨에 따라 일찌감치 여름 준비에 돌입했다.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예상되는데다 캐주얼 샌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름 장사를 좌우하는 샌들 입고 시기를 예년보다 앞당기고 물량이나 스타일 수를 대폭 확대했다.

ABC마트는 이달부터 샌들을 판매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센터'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부족한 물량으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은데 따라 올해는 4월부터 물량 확보에 들어갔다.

특히 지난해 일부 브랜드가 품절되기도 했던 코르크 샌들은 전년 대비 2배 가량 물량을 늘렸다. 코르크샌들은 코르크 소재의 창을 사용해 푹신한 사용감이 특징이다. 버켄스탁·포킨스 등이 코르크샌들로 유명한 브랜드다. 이 외에 스트랩 스포츠 샌들·레이디스 샌들·가죽 샌들·슬라이드·키즈 샌들 등 샌들 라인업을 다양하게 구성했다.

슈마커는 지난해 보다 한 달 빠른 3월부터 샌들 판매를 시작했다. 지난해 인기 모델인 테바 샌들의 물량과 종류도 확대했다. 전년 대비 물량을 20% 늘리고 테바 오리지널 테바 플랫폼 등의 라인을 추가했다. 테바는 '스포츠 샌들'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든 브랜드로 슈마커가 독점 판매 중이다. 이 업체는 여름 시즌 제품 군 중 샌들 매출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샌들 비중이 높다.

금강제화가 운영하는 레스모아도 지난해 보다 샌들 구성을 약 15% 늘려 이달 1일부터 샌들을 판매하고 있다. 주력 제품으로 아보레퍼시픽의 매니큐어 브랜드 '모디 내일'과 커엽한 여성용 샌들을 내세웠다. '로버스 마리나 샌들'은 핑크&블루, 화이트&민트, 실버&블루 등의 혼합된 색상이 특징이다. 4월 말부터 판매를 시작했던 지난해에 비해 샌들 판매량도 8% 가량 늘었다. /[illegible]기자 [illegible]

매력 넘치는 거문도 3대 특산품

동백나무 군락과 깎아지른 기암괴석, 쪽빛 청정해역이 조화를 이룬 섬신민 거문도. 여수항에서 약 120㎞ 뱃길로 2시간30분가량 거문도에 가면 계절별로 꼭 맛봐야 할 먹거리가 있다. 바로 참돔과 해풍쑥 그리고 갈치가 주인공이다. 지금부터 거문도 3대 특산품으로 유명한 이들을 만나보자.

봄 향기 물씬 '해풍쑥'

거문도의 효자작목은 바로 자연이 준 보약 '해풍쑥'이다.

거문도의 대표적인 농산물로 자리 잡은 해풍쑥은 풍부한 일조량과 적당한 기온의 토양 등 거문도만의 천혜의 지리적 특성으로 품질이 좋다.

또 청정지대의 소금기 섞인 해풍과 해무로 각종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며, 고유의 향이 진한 것이 특징이다.

가격은 ㎏당 7500원으로, 4㎏(1관)을 3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문의 특산품작목반 061-666-4502

행운을 부르는 '참돔'

참돔은 고단백 고칼슘 식품으로 특히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제격이다. 봄부터 여름, 4~8월까지가 제철이다. 행운과 복을 불러오는 물고기라 해 옛부터 생일, 회갑 등의 잔칫상에 빠지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는 참돔이 어민들에게 불행을 불러왔다.

22일 거문도의 한 양식업자는 "우리가 키우는 참돔은 청정지역에서 양식해서 그 맛과 품질을 보증할 수 있다"며 "물량은 계속 쌓이기는데 판로가 생기지 않아 근심"이라고 말했다.

/문의 참돔 소매구입 문의 010-6406-2222

어민의 영망제 '갈치'

오후 4시쯤 배를 타고 먼 바다에서 갈치를 잡아 돌아오는 시간은 다음날 아침 7시쯤. 어부들은 야행성인 갈치를 잡기 위해 밤새 집어등을 밝히고, 은빛 비늘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 일일이 낚시로 잡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남도 사람들은 거문도 갈치를 단연 최고로 친다. 다양한 수산물이 풍부하기로 소문난 거문도에서도 갈치에 대한 평에는 대단하다. 뱃살부터 꼬리까지 버릴 것이 전혀 없다. 더위를 이기고 고된 노동의 피로를 풀어내는 영양제 역할을 해왔다.

/문의 삼산면사무소 061-660-2607 남선수산 장협로 506-1(오천동) 갈치 T 654-4001 F 654-4003

/최치선 기자 choisunt@metroseoul.co.kr

아이들과 호텔서 보내는 특별한 하룻밤

르네상스 서울 호텔 '웰커밍 메이 패키지'

르네상스 서울 호텔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 맞춤형 패키지 '웰커밍 메이 패키지'를 27일부터 5월 10일까지 선보인다.

이번 패키지는 기본 공통혜택으로 유리돔을 통해 비치는 자연광을 즐길 수 있는 실내 수영장, 르네상스 레크레이션 센터와 사우나 무료 이용을 포함해 다양한 고객층을 배려한 풍성한 혜택을 제공한다.

'웰커밍 메이 패키지 I'은 기본 공통혜택 포함 디럭스 룸 1박, 카페 일리에 2인 무료 조식을 제공한다(12세 미만 어린이 최대 2명 무료). 가정의 달 특별 추가 구성으로 '트윈 트윈 1'도 선보인다. 객실 중간 문을 이용할 수 있어 대가족에게 안성맞춤이다. 기본 공통혜택 포함 커넥팅 룸 1박, 카페 일리에 어른 4인 무료 조식을 제공한다(12세 미만 어린이 각 방당 최대 2명 무료).

'웰커밍 메이 패키지 II'는 기본 공통혜택을 포함한 디럭스 룸 1박, 카페 일리에 2인 무료 조식(12세 미만 어린이 최대 2명 무료), 태국 럭셔리 스파 브랜드 'THANN' 여행용 리미티드 키트 5종 1개를 한정 수량에 한해 선물한다.

/김보라 기자

관광公 "황금연휴, 中·日 관광객 드루와"

내달 17만 3000명 방한 예정 축제·마케팅 등 유치 총력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김영표)는 日·中 황금연휴 기간에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공사는 일본의 골든위크(4.25~5.6)와 중국 노동절(5.1~5.3)기간 중 방한관광 양대시장인 중국과 일본관광객 약 17만3000명이 방한할 것으로 예측(중국 노동절 연휴는 4.30~5.4로 적용)하고, 양국 관광객 대상 환대 캠페인과 온라인 마케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항 환영행사로 환영무드 물씬

공사는 일본 골든위크가 시작된 4월25일부터 2일간, 그리고 중국 노동절 연휴가 시작되는 5월1일부터 3일간 문체부, 한국방문위원회 등과 공동으로 인천, 김포국제공항 등에서 환영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온라인캠페인, 여행사 SNS

이번 골든위크를 계기로 기세를 잡은 이후에도 방한여행 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캠페인을 연다. 공사는 일본의 초대형 포털을 보유한 라쿠텐트래블(회원수 1억 명)과 공동으로 5월중 온라인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벌인다. 한국여행의 잠재수요까지도 확보해갈 예정이다.

◆부산 Medical Street 축제

160여개의 병원이 밀집된 부산 서면에서는 의료관광 홍보를 위해 오는 5월1일~2일 양일간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서면 Medical Street 축제'가 열린다. 공사는 글로벌 의료관광 선도국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홍보부스 설치 등을 지원하고 자체 제작한 온·오프라인 콘텐츠를 통한 각종 홍보 활동을 펼친다.

부피는 줄이고 실용성 키운 '미니타워'

한미마이크로닉스 '코비 미니 USB 3.0'

컴퓨터 하드웨어와 올인원PC 전문기업 한미마이크로닉스(대표 강현민)가 심플하면서도 귀여움을 강조한 미니타워 '코비(CORBY)미니 USB 3.0'(사진) 모델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크기는 최대한 줄이면서 CD롬 장착이 가능해 뛰어난 확장성도 갖추고 있다.

기본 구성은 후면 80㎜ 팬 기본 장착, 전면 120㎜ 팬 옵션 장착, 사이드 패널 120㎜ 팬 장착 가능 에어홀 지원, 상단 ATX 파워 서플라이를 지원하며 내부 손 베임 방지처리와 그래픽카드 최대 280㎜지원, CPU쿨러 최대 150㎜ 장착을 지원한다.

또 온보드헤더 방식의 USB3.0을 적용해 기존 USB 3.0보다 최대 20%의 속도가 향상됐다. USB 2.0보다 3배가량 빠른 데이터 처리속도를 체감할 수 있다.

다양한 미니타워들이 출시되고 있는 가운데 부피는 줄이고 실용성을 높인 코비 미니 USB 3.0이 가정·사무용 등의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 시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코비 미니 USB 3.0의 정보는 한미마이크로닉스 공식 홈페이지(www.micronics.co.kr)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양성운 기자 ysw@

5월의 신부, 폭풍 다이어트로 몸 속에 '돌' 키운다

담석증 환자 증가 저칼로리 식단·보조제 등 원인

예비신부들 사이에 다이어트 도중 담석증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망된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담석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09년 10만2000명에서 2013년 13만명으로 늘었다. 성별로는 2009년 남자 47.1%, 여자 52.9%로 여성환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많다. 옷자락이 가벼워지는 봄철, 몸매에 신경 쓰는 여성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담석증 질환의 증상과 치료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담석증은 담낭 속에 저장된 음식물 등이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못해 생긴 결석을 말한다. 여성에게 담석증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여성호르몬이 담즙 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젊은 여성들은 다이어트를 위해 저칼로리 식단관리와 단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장기간 지방섭취를 제한할 경우 담즙이 십이지장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담낭에 고인상태로 농축돼 결석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담즙 속 염분과 콜레스테롤 양이 변하면서 담낭의 운동성이 저하되고 담즙이 정체 되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담석증이 발병할 수 있다. 단기간에 체중감량 효과를 얻고자 복용하는 다이어트 보조제도 담석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최치선 기자 chlsun1@

"삼둥이세트로 건강 챙기세요"

<한우사골곰탕 육개장 갈비탕>

강강술래 50% 할인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대표 최종만)가 고객들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 보양식 파격할인 행사를 벌인다.

강강술래는 이달 말까지 온라인쇼핑몰(sullatmell.com)과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 한우사골곰탕(500g 3팩-6인분)과 육개장(500g 3팩-6인분), 갈비탕(500g 3팩-6인분)으로 구성된 보양식 삼둥이세트(사진)도 50% 할인된 3만원에 판매한다.

또 영양간식으로 구성된 럭키A세트(오짝쌀라돈가스1.44㎏+찰찰한우떡갈비360g+흑염지한돈너비아니360g)는 4만5600원, 럭키B세트(등등심돈가스1.44㎏+찰찰한우떡갈비360g+흑염자한돈너비아니360g)는 4만2000원으로 각각 40% 할인한다.

고단백 영양 간식 갈비맛 쇠고기육포박스(10봉)는 40% 할인된 3만6000원, 인기메뉴로 구성된 캠핑세트(한우불고기1㎏+한돈양념구이750g)는 44% 할인된 4만3000원에 구매 가능하다.

/김보라 기자 bora@

덩치↓ 실용성↑… 도시형 CUV 주목

최근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열풍에 동참하고 싶지만 평소 출퇴근 시 실용적일까 망설여진다면 크로스오버유틸리티(CUV)에 눈을 돌려도 좋다. 덩치는 줄었고 실용성은 높아져 평소는 물론 주말 레저활동에도 안성맞춤이기 때문이다.

왼쪽부터 New 푸조 2008, 렉서스 NX200t, 2015 QM3.

다이내믹한 주행성능 'New 푸조 2008'

'New 푸조 2008'은 지난 10월 국내에 출시됐다. 사전 계약은 시작하자마자 예약 대수가 1000대를 넘었다. 2월에는 국내에 들어온 지 2년 만에 월간 판매량이 높은 차량으로 올라섰다. 열풍의 주역은 인소문이었다. CUV에서 찾기 힘든 민첩한 주행성능이 한 몫 했다. 최대토크는 1750rpm에서 23.5kg.m다. 17.4km/ℓ의 연비와 2000만원대의 합리적인 가격도 장점이다.

디자인도 놓치지 않았다. 'New 푸조 2008'의 후미등은 푸조 브랜드의 상징인 사자가 발톱으로 할퀸 모습을 담았다. 차량의 지붕에는 알루미늄 레일을 더해 차체를 더욱 단단하게 완성하는 동시에 높은 활용도까지 갖췄다. 시트로엥은 자사의 새로운 CUV 'C4 칵투스' 차량의 전후면과 옆면에 부드러운 TPU(Thermoplastic Polyurethane) 소재의 에어범프 적용해 안전도를 높였다.

CUV의 고급화 '렉서스 NX200t'

렉서스의 NX라인은 CUV의 고급화를 실현해냈다. NX200t에는 CUV에서 만나기 힘든 세단의 장점이 녹아있다. 렉서스 최초로 크기를 줄인 2L 가솔린 터보엔진과 4륜구동 덕분에 주행능력은 뛰어나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시간(제로백)은 단 7.3초다. 주행 조건에 따라 앞뒤 바퀴의 토크 배분을 100:0에서 50:50 까지 자동으로 제어하는 다이나믹 토크 컨트롤 AWD은 4륜구동의 강점을 극대화했다.

복합연비는 9.5km/ℓ다. 기본형인 '수프림'은 5480만원, 고성능 모델인 'F 스포트'는 6100만원, 고급형 '이그제큐티브'는 6180만원에 판매된다.

18.5km/ℓ, 1등급 연비 '르노삼성 QM3'

QM3는 2013년 출시 당시 1000대 한정 판매 이와 분이 7분 만에 완판 되며 인기를 모았다. 열풍은 계속된다. 올해 1분기에만 3148대가 팔렸다. 잘 팔린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독일 게트락 사의 6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조합해 복합 18.5km/ℓ의 1등급 연비를 뽐낸다. 연료를 최대 10% 절약할 수 있는 에코모드 주행기능이 기본 장착됐다.

2015년형 QM3는 전동식 사이드미러와 후방경보장치 등 QM3가 빠뜨린 옵션까지 담고 돌아왔다. 그 밖에 머리까지 보호하는 사이드에어백이 포함된 4개 에어백, 가스식 후드 리프터(SE)와 전방 안개등 코너링 기능(RE)을 갖췄다. 가격은 2280만~2495만원이다.

/양소리기자 Ksound@metroseoul.co.kr

여행의 계절 5월 연비 높이는 에코운전법

급가속·급제동만 자제해도 '굿'

화창한 봄이다. 가족이나 연인, 친구들과 차를 타고 나들이를 떠나기 좋은 계절이 왔다. 운전 시 조금만 신경을 써 연비까지 챙긴다면 더 기분 좋은 소풍을 도울 것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정속 주행과 급제동·급가속 자제는 에코드라이빙의 기본 전제조건이다.

차량이 급가속이나 급제동을 할 때마다 10cc의 휘발유가 더 소모된다. 10번이면 100cc가 더 들어가고, 이는 ℓ당 연비가 10km인 차량이 1km를 더 달릴 수 있는 휘발유를 낭비하는 셈이 된다.

시동을 건 후에는 천천히 부드럽게 출발하는 것이 좋다. 급하게 출발할 경우 엔진에 무리를 주고 기름이 빨리 소모된다.

공기가 빠진 타이어를 방치한 채 운전하면 더 많은 연료 소비를 야기한다. 타이어 공기압은 2~3개월 주기로 확인한 후 적절한 규격의 공기압을 보충하는 것이 좋다. 마모가 심한 타이어는 안전상에도 문제가 될 수 있어 교체해야 한다. 한국타이어 측은 "불규칙한 마모를 방지해 수명을 연장하고 연비를 향상시키기 위해 타이어는 일반적으로 5000~1만km를 주행한 뒤 위치를 교환해 주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타이어의 회전저항을 줄이는 것도 연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타이어 회전저항을 10% 줄이면 약 1.74%의 연비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최근에는 일반 타이어보다 다소 비싸지만 연비 절감 효과가 있는 친환경 타이어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친환경 타이어는 타이어의 접지면을 줄여 일반 타이어보다 회전저항을 낮춤으로써 같은 에너지로 더욱 멀리 나갈 수 있도록 개발된 제품이다.

스틸 휠보다 가벼운 알루미늄 휠이나 마그네슘 휠을 사용해도 연비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차량이 10% 가벼워지면 연비는 3.2%, 가속성능은 8.5%, 핸드조향능력은 19% 향상된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에 의하면 80km/h의 속도로 달릴 경우 그 이하로 주행할 때보다 약 7%의 출력이 더 필요해진다.

슬기로운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잘 쓰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운전을 할 때 도로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맞춰 브레이크 사용을 줄인다는 것이다.

신호대기 중에는 변속기를 중립으로 두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다. 이는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방지해 연비효율을 높일 수 있다. 국내외 완성차 업체들은 이러한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차량 정차 시 자동으로 시동이 꺼지고 출발 시 다시 자동으로 시동이 걸리는 '오토 스타트-스톱' 기능을 최신 모델들에 적용하고 있다.

/이봉준기자 ljbonn@

박근혜 대통령, 브라질서 '에쿠스 방탄차' 이용

박근혜 대통령이 브라질 순방에서 현대자동차의 에쿠스를 의전차량으로 이용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브라질 순방 기간인 23~25일(현지시간) 에쿠스 방탄차를 탔다.

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해외 순방을 하면서 의전차량으로 국산차를 이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상 국가 정상 순방 시 해당 국가에서 의전차량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청와대의 요청으로 현대차 브라질법인에서 에쿠스 방탄차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가 브라질에서 생산기지를 건설하고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을 고려해 에쿠스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사측은 "대통령이 해외 순방 기간 에쿠스를 의전차로 이용한 것이 알려져 국내는 물론 브라질에서 현대차의 이미지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 대통령은 2013년 취임식에서 대통령 취임식 최초로 에쿠스 방탄차를 탄 바 있다.

/이봉준기자

한국지엠-코트라, 협력업체 中진출 지원

한국지엠이 협력업체 32곳과 함께 코트라의 중국 현지 합작 법인인 SGM(Shanghai GM)을 방문해 국내 협력업체들의 중국시장 진출과 확대를 위한 행사를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한국지엠에 따르면 지난 22~24일 진행된 이번 행사는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상해 지사의 주선으로 이뤄졌다. 구매 담당자들과 비즈니스 미팅을 갖고 현지 한국업체와 자동차 업체 방문, 중국 자동차 시장과 투자관련 세미나 등 국내 협력업체들의 중국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일정으로 진행됐다.

한국지엠의 협력사 상해지엠 방문 기념사진.

에디발도 크레닌 한국지엠 구매부문 부사장은 "지난 3월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지엠이 선정한 올해의 협력업체상을 수상한 73개 업체 중 28개가 한국업체"라며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한국업체들의 탁월한 품질과 기술력은 중국 자동차 업계들에게도 충분히 매력적인 요소"라고 밝혔다.

이경우 원산금속공업 사장은 "한국 협력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한국지엠 코트라의 노력에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세계 최고 품질의 제품을 국내외 시장에 계속해서 공급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용기기자 yong@

영화 '차이나타운'(감독 한준희)의 포스터와 스틸이 처음 공개됐을 때 김혜수(44)의 모습은 기히 충격적이었다. 짧게 잘라 헝클어진 머리에 기미가 가득한 얼굴. 여성스러움과는 거리가 먼 거친 외양은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김혜수의 이미지를 산산조각 내버리는 파격이었다. 얼굴에 피가 묻은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카리스마를 드러내는, 김혜수의 또 다른 변신이다.

거친 얼굴·두툼한 뱃살 파격변신

영화 '차이나타운' 김혜수

'차이나타운'은 쓸모가 있어야 살아남는 차이나타운에서 각자만의 생존 방식으로 살아남은 두 여자의 이야기를 그리는 느와르다. 김혜수가 연기한 엄마는 차이나타운을 이끄는 보스다. 거지의 손에서 자라나 차이나타운에 팔려온 소녀 일영(김고은)을 비롯해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자식처럼 거느리고 있는 엄마는 오직 '쓸모'만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한다. 쓸모가 없어지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단 하나, 오직 죽음뿐이다.

영화를 연출한 한준희 감독은 1984년생이다. 장편영화는 처음인 신인 감독의 작품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시나리오, 그리고 감독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

"처음 시나리오를 봤을 때 꽤 충격적이었어요. 여성이 주체가 되는 영화라 반가웠지만 엄마도 일영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캐릭터였거든요. 강렬하고 충격적이면서도 잘 써인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감독님을 만났는데 소년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은하철도 999'의 철이 같은?

신인 감독 강렬한 시나리오 매료
쓸모 인정 받아야 하는 삶 공감가
외모부터 몸매까지 과감한 변신

(웃음) 하지만 현장에 가보니 감독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생겼어요. 정말 좋았어요."

영화는 얼굴에 피를 묻힌 위압적인 태도로 일영을 바라보는 엄마의 모습으로 시작한다. 섹시함과 우아함으로 영화제 레드카펫을 빛내던 김혜수를 떠올리면 분장을 통해 만든 거친 얼굴에 보형물을 넣어 두둑한 뱃살까지 만든 영화 속 엄마의 모습은 파격 그 자체다. 영화에서는 엄마의 과거가 그려지지 않는다. 대신 김혜수는 엄마의 외적인 모습을 통해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가 간접적으로 드러나기를 바랐다. 파격을 통해 관객 스스로 인물의 실체에 대한 궁금증을 갖기를 원했다.

"엄마는 일영 이상의 강도와 시간을 몸으로 버텨낸 사람이에요. 어떤 이유에서건 누군가에게 버려졌을 것이고 생존만이 목적인 채로 처절하게 살아남아 지금의 엄마가 된 것일 테니까요. 이렇게 처절하게 잔혹한 삶을 버텨낸 사람에게 일말의 여성성이 남아 있을까요? 외모와 몸매를 바꾼 건 절대 권력자로 엄마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피부, 몸, 내장, 머리, 손톱 모든 것이 내부적으로 완전히 망가진 상태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김고은을 비롯해 고경표, 엄태구, 이수경, 그리고 아역배우 김수안 등 신예 배우들과의 호흡도 즐거운 경험이었다. 그렇다고 김혜수가 젊은 배우들 사이에서 선배라는 책임감을 떠안고 작업에 임한 건 아니었다. "영화라는 울타리에서 하나의 캐릭터로 카메라 앞에 서서 연기할 자격이 있다면 다 배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김혜수는 '차이나타운'에서 배우들과 조화롭게 어울리며 자신의 존재감을 스크린에 강하게 새겨 넣었다.

'쓸모 있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차이나타운'의 주제는 결국 이 시대의 슬픈 진실을 보여준다. 범죄자의 이야기로 극화된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결국 자신의 '쓸모'를 인정받기 위해 어떤 투구를 벌이기 때문이다.

작품을 통해 늘 가치를 평가 받는 배우에게는 더욱 엄혹한 진실일 수도 있다. 그래서 김혜수는 '차이나타운'을 "나의 이야기이면서 우리의 이야기"라고 말한다.

"배우의 삶이라는 것도 그래요. 자신의 쓸모가 있는지를 매번 검증 받게 되고 또 그것이 드러나는 일을 하니까요. 그래서 영화를 찍으면서 '나는 쓸모가 있나? 쓸모가 있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아주 잠깐 하기도 했죠(웃음). 프란시스 베이컨의 자화상을 마주했을 때와 비슷한 느낌이에요. 마주하고 싶지 않은, 기괴하게 일그러진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강렬함이 우리 영화에 있는 것 같아요."

/장병호기자 sol sol@metroseoul.co.kr

사진/CGV 아트하우스 제공

star bag

전주영화제 개막식 사회

그룹 신화 멤버 김동완이 오는 30일 개막하는 제16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식 사회자로 발탁됐다. 김동완은 2005년 제 6회 전주국제영화제 홍보대사로 활약하며 인연을 맺었다. 이번엔 개막식 진행을 맡아 전주국제영화제와의 인연을 이어가게 됐다. 공동 MC는 배우 겸 아나운서 임성민이다.

9월까지 매달 신곡 발표

다음달 1일 컴백하는 그룹 빅뱅이 오는 9월까지 매달 새 싱글 앨범을 발표하는 메이드 시리즈(Made Series)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빅뱅은 다음달 1일 프로젝트 M을 시작으로 8월까지 4개월 동안 매달 싱글 앨범을 발표한다. 이를 토대로 9월에는 앨범을 발표할 계획이다.

부산시 명예홍보대사 활동

배우 이범수가 부산시 명예홍보대사가 됐다. 부산시는 "중국에서 인지도가 높은 한류스타 이범수를 명예홍보대사로 택했다"며 "이범수의 활동을 통해 부산이 국제적인 문화 도시로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범수는 "문화를 통해 부산의 글로벌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좋은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팬들 선물에 미소로 화답

배우 한예리가 영화 '극적인 하룻밤' 촬영 현장에 전해진 팬들의 선물에 미소로 화답했다. 현장의 한 스태프는 "늦은 시간까지 촬영이 나 보면 지칠 수도 있는데 한예리와 팬들 덕분에 화기애애하게 촬영을 마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극적인 하룻밤'에서 한예리는 톡톡 튀면서 사랑스러운 캐릭터 시후 역을 맡아 윤계상과 호흡을 맞추고 있다.

서울연극제 참가작 '불량청년'

100년 전 광장에선 무슨 일이?

이혜성 연출 "청년들 고민하지 않아"

21세기 무기력한 청년 김상복과 20세기 조국 독립을 위해 투쟁한 청년 김상옥이 만났다.

2015 서울연극제 공식 참가작 '불량청년'은 김상복이 광화문 촛불 집회 현장에서 물대포를 정면으로 맞아 1921년 경성으로 타임슬립한 이야기를 담는다. 김상복은 독립운동가 김상옥과 닮았다는 이유로 의열단에 합류한다. 목숨을 걸고 일하는 의열단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김상옥과 함께 살아 있고 지녔던 '어떤 가치'를 깨닫는다.

23일 대학로 자유극장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혜성 연출가는 "현 청년들은 고민을 많이 하지 않는다. 기성세대의 잘못이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켜야 할 가치들이 왜곡됐다"며 "독립을 위해 싸웠던 그 시대 청년들이 한 자연인 고민을 보여주고 싶었다. '왜' 무엇 때문에 라는 대사가 자주 나온다. 연극을 본 관객들이 답을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연출 포인트를 말했다.

'불량청년'의 초연 제목은 '불령선인'이었다. 일제 시대 독립 운동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불령선인'은 체제에 불응하던 사람들이다. 연극의 배경인 광화문 광장은 '불량청년' 들로 가득하다. 촛불집회를 준비하는 단체, 단식 농성단 앞에서 폭식을 하는 일베, 서북 청년단 등 다양한 생각을 가진 청년들이 모여 있다. 연극은 서사성을 지니고 있지만 결코 무겁지 않다. "왜 광장에서 노래를 못 부르게 하냐"며 불만을 토로하는 역사의 노래는 흥겹고, 휴대폰 카메라로 격식을 찍는 기자의 모습은 관객을 웃게 한다.

이 연출가는 "젊은들은 주제가 무엇이든 노래를 해야 하는데 억압돼 있다. 또 나는 주류 언론의 문제를 꼬고 싶었다. 오히려 개인 매체들이 주요 언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며 시대를 관통하는 인물로 역사와 기자를 뽑았다.

또 "순수예술도 있지만 시대의 주장을 공감하고 고통에 공감하는 것도 예술"이라며 "현재 가장 필요한 건 고통에 공감하는 거다. 고통에 공감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소외되고 있다. 이 시대 예술의 소명"이라고 '불량청년'의 가치를 설명했다.

'불량청년'은 다음달 3일까지 대학로 자유극장에서 공연된다.

/전효진기자 leonh998

'어벤져스2' 나흘째 300만 돌파

엇갈린 반응에도 전작 기대감·한국촬영 등 이슈로 흥행 돌풍

마블 슈퍼히어로의 활약이 극장가를 사로잡았다. 지난 23일 개봉한 영화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하 '어벤져스2')이 역대 외화 흥행 신기록을 연일 경신하며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집계에 따르면 '어벤져스2'는 개봉 4일째인 26일 아침 누적 관객수 300만을 넘어섰다. 역대 외화 최단 기간 신기록이자 지난해 1700만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 역사를 새롭게 쓴 '명량'과 같은 속도다.

'어벤져스2'는 개봉 전부터 예매율과 예매량부터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우며 일찌감치 흥행 신기록 행진을 예고했다. 개봉 첫날 62만여 명의 관객을 모으며 역대 외화 최고 오프닝 기록을 세웠다. 이어 개봉 2일째 100만 관객을 돌파하고 3일째 2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역대 외화 흥행 신기록을 연일 경신했다.

북미 지역에서 먼저 공개돼 호평을 받았던 '어벤져스2'는 국내에서는 다소 엇갈린 반응을 얻었다. 21일에 열린 언론 시사회 이후 국내 언론과 평단은 액션과 드라마가 짜임새 있었던 전작에는 못 미친다는 평가를 내렸다. 캐릭터도 늘어나고 액션도 스케일이 커지면서 다채로운 볼거리를 갖췄지만 스토리가 산만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국내 촬영 장면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일반 관객보다는 마블 코믹스의 팬이 즐길 요소가 더 많다는 분석도 있었다.

개봉 이후 관객들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전작에 못 미치는 완성도에 아쉬움을 나타내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앞으로 이어질 시리즈를 위한 징검다리 역할로서는 충분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엇갈리는 반응과 별개로 '어벤져스2'의 흥행은 예상대로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다. 개봉 이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어벤져스2'의 감상기가 올라올 정도로 영화는 이미 신드롬이 됐기 때문이다.

수입배급사 월트 디즈니 컴퍼니 코리아는 "'어벤져스2'의 흥행 신드롬의 배경에는 전 세계에서 약 15억 달러의 수익을 거둔 '어벤져스'와 국내에서만 900만 관객을 모았던 '아이언맨3'에 이은 마블 작품에 대한 높아진 기대감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한국의 모습이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에서 최장 시간 등장하는 이슈도 있다"고 덧붙였다.

/장병호기자 solarr@metroseoul.co.kr

JTBC '냉장고를 부탁해' 김풍 샘킴 최현석 정창욱 미카엘

올리브 '올리브쇼 2015'에 출연 중인 셰프들

지금 예능은 '셰프' 사랑 중

레이먼 킴·샘 킴·최현석 등 전문성+예능감 인기

최근 방송가 예능에서 셰프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 25일 방송된 tvN 'SNL 코리아'는 셰프 레이먼 킴과 샘 킴이 호스트로 출연하는 '셰프 특집'으로 꾸며졌다. 이들의 공통점은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연예인 못지않은 입담을 과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레이먼 킴은 SBS '정글의 법칙 in 인도차이나'와 KBS '1박2일'에 출연해 활약을 보였고, 샘 킴은 MBC '진짜 사나이2'와 JTBC '냉장고를 부탁해'에 고정 멤버로 출연해 주목을 받았다.

이들만이 아니다. 여러 예능에서 게스트로 출연해 입담을 과시하고 있는 최현석은 다음 달 21일 방송되는 올리브 TV '한식대첩3'의 심사위원을 맡는다. 그는 또 '올리브쇼 2015'에서 셰프들을 이끄는 대장 역할을 하고 있고, KBS '인간의 조건3'의 고정 멤버로 발탁돼 지상파에도 얼굴을 알릴 예정이다.

셰프들의 예능 급부상에 대해 '마스터 셰프 코리아2'를 만든 김경수 PD는 "방송계는 예능에 늘 등장하는 인물에 식상함을 느끼며 새얼굴을 찾으려고 노력해 왔고, 자신의 영역을 대중적으로 알리고자 하는 셰프들의 바람이 서로 맞아떨어졌다"며 "특히 이들은 셰프라는 전문성과 함께 MC들과 견주어도 모자라지 않는 입담으로 시청자들에게 어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JTBC '냉장고를 부탁해', 올리브TV '올리브쇼' 등 최근 불어온 '쿡방'(요리하는 방송) 열풍도 영향을 미쳤다.

/서승희기자 yuri@

리부트 '판타스틱4' 8월 개봉

마블 코믹스의 슈퍼히어로팀의 이야기를 그린 '판타스틱4'가 오는 8월 국내 개봉을 확정했다.

'판타스틱4'는 미스터 판타스틱, 인비저블 우먼, 더 씽, 휴먼토치 등 슈퍼히어로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2005년과 2007년 개봉한 '판타스틱4' 시리즈의 리부트(기존 시리즈를 새롭게 만드는 것) 작품이다.

이번 영화에는 할리우드의 주목받는 신예 배우들이 함께 한다. '위플래쉬'로 국내에도 얼굴을 알린 마일즈 텔러가 미스터 판타스틱 역을 맡았다. 인비저블은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의 케이트 마라가 연기한다. 여기에 '빌리 엘리어트'의 제이미 벨, '크로니클'의 마이클 B. 조던이 각각 더 씽과 휴먼 토치 역으로 함께 한다.

연출은 초능력이라는 소재를 사실적으로 연출해 호평을 받았던 '크로니클'의 조쉬 트랭크 감독이 맡았다.

/장병호기자

매주 토요일 밤 11시
FashionN
깐깐한 그녀들의 리얼검증 프로젝트
follow me 5
Real Queen
tcast

롯데 강민호가 26일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삼성과의 경기에서 3회말 1사 1 3루 상황에서 3점 홈런을 때린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민호 5타점 날았다

롯데, 삼성과 3연전 싹쓸이··KT 23경기만에 '20패' 신기록

롯데 자이언츠가 삼성 라이온즈를 상대로 3연전을 싹쓸이했다

롯데는 26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2015 타이어뱅크 KBO리그 홈경기에서 선발 브룩스 레일리의 8이닝 1실점 호투와 5타점을 쓸어담은 강민호의 활약으로 삼성을 7 1로 꺾었다

24일 5 3 승리 25일 12 9 승리를 기록한 롯데는 이로써 삼성과의 주말 3연전을 스윕했다 롯데가 삼성을 상대로 스윕한 것은 2010년 6월 4 6일 대구 3연전 이후 약 5년만이다

롯데 선발 레일리는 8이닝 동안 3안타와 볼넷 두 개만 내주고 1실점으로 막아 시즌 3승(1패)째를 챙겼다 삼진은 6개를 빼앗았다 삼성 선발 윤성환은 7이닝 동안 탈삼진 8개를 기록되지만 홈런 하나를 포함한 11안타를 얻어맞고 7실점하며 무너졌다

롯데 강민호는 3회말 3점 홈런을 날리며 이어 7회말에도 2사 1 3루에서 우중간을 가르는 2타점 2루타를 날리는 등 3안타 5타점으로 펄펄 날았다

◆ 넥센 윤석민 홈런 두방

넥센 히어로즈는 수원 케이티위즈파크에서 윤석민의 홈런 두 방을 앞세워 KT 위즈를 11-4로 제압했다 이날 패배로 KT는 3승20패(0.130)를 기록하며 프로야구 통산 최단 기간 20패의 멍에를 썼다

윤석민은 2회 첫 타석에서 KT 선발 엄상백의 140㎞ 직구를 받아쳐 120m짜리 투런포를 날렸다 이어 5회 초 KT 불펜 투수 최원재의 115㎞ 커브를 잡아당겨 펜스를 넘기는 125m짜리 솔로포를 쏘아 올렸다

KT 선발 투수 엄상백은 이날 3⅓이닝 동안 63개의 공을 던져 2피안타 1홈런 4볼넷 5실점을 내주는 혹독한 프로 신고식을 치렀다

◆ 한화 2년만에 스윕 쾌挙

한화 이글스는 SK 와이번스와의 홈경기에서 5-4로 승리해 시즌 첫 3연승과 스윕을 기록했다 한화가 스윕을 기록한 것은 2013년 4월 16~18일 대전 NC전 이후 무려 7年 만이다

한화 선발 쉐인 유먼은 5이닝 4피안타 3탈삼진 4사사구 3실점으로 승패 없이 물러났다 이후 박정진(2⅓이닝)-권혁(1⅔이닝)이 무실점을 합작하며 승리를 지켰다 타선에서는 이용규가 3안타로 맹활약했다

/김민준기자 mjk.m@metroseoul.co.kr

이청용 돌아왔다! 헐시티전 30분 활약

"시간 부족했다" 평점 5
기성용·윤석영 교체출전

이청용(27 크리스털 팰리스 사진)이 돌아왔다

이청용은 25일 영국 셀허스트 파크에서 열린 2014 2015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헐시티와의 34라운드 홈경기에 교체 출전했다 선발 라인업에 빠졌던 그는 팀이 0 1로 뒤지던 후반 19분 그라운드에 나섰다

이청용의 출전은 지난 2월 크리스털팰리스로 이적 이후 처음이다 프리미어리그 무대 복귀 역시 2012년 5월 볼턴이 2부리그로 강등되면서 3년 만에 이뤄졌다

지난 1월 호주에서 열린 아시안컵 대회 도중 오른쪽 정강이뼈를 다쳐 부상 치료에 전념해 온 이청용은 지난주 21세 이하 팀 경기에 나서 최종 실전 점검을 마무리하고 이날 경기에 나섰다 중앙 공격수로 나서 추가시간까지 30분 가까이를 소화하며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했음을 알렸다

이날 헐시티에 0-2로 무릎을 꿇은 크리스털 팰리스는 승점 42(11승 9무 14패)로 리그 11위를 달리고 있다 이청용은 이번 시즌 남은 4경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후 영국 스카이스포츠는 이청용에게 "출전 시간이 부족했다"며 평점 5점을 부여했다

기성용(26-스완지시티)은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원정경기에서 후반 26분 교체 출전해 팀의 3 2 역전승에 힘을 보탰다 윤석영(25-퀸스파크 레인저스) 역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홈경기에서 후반 19분 교체 출전했고 팀은 득점없이 0-0으로 비겼다

◆ 손흥민 선발 득점포 침묵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뛰는 손흥민(23 레버쿠젠)은 득점포를 가동하지 못하며 팀의 연승기록도 7경기에서 멈춰섰다

팀 역대 최다 8연승 기록에 도전했던 레버쿠젠은 이날 독일 쾰른에서 열린 2014 2015 독일 분데스리가 30라운드 FC쾰른과의 경기에서 1 1로 비겼다

선발 출장한 손흥민은 후반 9분 율리안 브란트와 교체될 때까지 골을 기록하지 못했다 차범근 전 수원 삼성 감독이 보유한 분데스리가 한국인 시즌 최다골(19골)과는 여전히 2골 차다

홍정호의 아우크스부르크는 함부르크와의 원정경기에서 2-3으로 패했다 홍정호는 이날 선발출전했고 함부르크의 지동원은 후반 15분 교체로 들어갔다

/김민준기자

곽민서가 26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인근 레이크 머세드 골프클럽에서 열린 LPGA 투어 스윙잉 스커츠 클래식 3라운드 5번홀에서 강력한 티샷을 날리고 있다 /AFP 연합뉴스

곽민서 "이번 우승은 나"

LPGA 스윙잉 스커츠 3R 선두와 1타차

곽민서(25·JDX멀티스포츠)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스윙잉 스커츠 클래식 3라운드에서 공동 2위를 달렸다

곽민서는 26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인근 레이크 머세드 골프클럽(파72 6507야드)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이글 1개와 버디 5개 보기 4개를 묶어 3언더파 69타를 기록했다 중간합계 8언더파 208타로 모건 프레슬(미국)과 함께 공동 2위에 올랐다 1위를 달리고 있는 브룩 헨더슨(캐나다 9언더파)과는 1타 차이다

2012년 LPGA 투어에 데뷔한 곽민서는 지난해 2부 투어인 시메트라 투어에서 두 차례 우승하며 상금 2위에 올랐다 LPGA 투어에서 개인 최고 성적은 2013년 세이프웨이 클래식 공동 30위다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18)는 4위(6언더파)로 최종 라운드에 돌입한다 유소연(25 하나금융그룹)이 선두와 3타 차인 4언더파(7위)를 기록하고 있고 지난주 롯데챔피언십 우승자 김세영(22 미래에셋)은 3언더파로 공동 8위를 달리고 있다

스테이시 루이스(미국)와 펑산산(중국)은 나란히 5언더파(공동 5위)를 기록중이다 /김민준기자

류현진 복귀 초읽기·· "오늘 불펜 투구"

LA 기자들 소식 전해

어깨 부상에서 회복 중인 류현진(28 LA 다저스 사진)이 불펜 투구를 시작한다

로스앤젤레스 지역 라디오방송 AM570 의 진행자 데이비드 베세는 26일(한국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류현진이 내일 코치진의 통제하에 불펜 투구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LA 타임스의 다저스 담당 기자인 딜런 에르난데스 역시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류현진이 어쩌면 내일 불펜 투구를 던질 것"이라며 "내일 던질 가능성이 있다"고 썼다

어깨 통증이 재발한 류현진은 지난 8일 처음으로 캐치볼 훈련을 시작하며 복귀를 향한 첫발을 뗐다 캐치볼 훈련을 꾸준히 소화하는 동시에 점차 캐치볼 거리를 늘려간 류현진은 드디어 처음으로 마운드에 오르게 됐다 /김민준기자

조희연 유죄판결… 배심원, 검찰의 손 들어준 이유는?

"후보자 검증 가장한 허위사실공표 사라져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심규홍)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 결과 배심원 7명 모두 만장일치로 조 교육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7대0은 정작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조희연 교육감의 기대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일까?

우선 조희연 교육감이 고발당한 혐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인 허위사실공표죄다. 이는 두 가지 구성요건을 가지고 있다. 특정 후보자에 대해 선거의 당선 혹은 낙선을 목적으로 (이 경우에는 고승덕 후보의 낙선이 목적) 다른 하나는 허위의 사실 공표다.

지난해 12월 3일 검찰이 조 교육감을 기소한 이유는 고승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죄'다. 낮은 지지율을 제고하기 위해 상대 후보인 고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당선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변호인들은 첫 번째 혐의를 집중적으로 변론했다. 즉, 고승덕의 낙선이 목적이 아니라 시중에 유포된 루머에 대한 후보자의 해명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나중에 허위 사실임이 밝혀졌어도, 적어도 기자회견을 한 당시에는 이미 뉴스다, 기자의 트윗터에서 나돌고 있는 등 허위가 아니라 사실이라고 충분히 믿을만한 상황이었다고 방어했다.

이러한 변론에 대해 배심원의 판단은 달랐다.

첫번째 경우, SNS에서 나도는 의혹의 해명을 요구한 것이라면 후보자의 트윗 계정으로 "의혹을 해명하시오"라고만 해도 될 일인데 이것을 굳이 국회에서 기자회견까지 한 것은 명백히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두 번째 허위사실 공표의 경우에는 허위사실이라도 이게 사실이라고 믿었을 가능성이다. 배심원이 보기에 조희연 후보는 SNS에서 취득한 정보를 사후 검증 없이 바로 기자회견까지 이어갔다. 이 점에서 이것이 사실이라고 확신했다기 보다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었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애초에 변호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라 다만 후보자 검증 차원에서 의문을 제기한 것"이라고 변론한 것이 오히려 "허위일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읽히면서 나쁜 결과를 가져왔다.

재판부 역시 7명의 배심원들이 내놓은 판단에 힘을 보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기소는 검사에게 주어진 재량권"이라며 "공소권 남용은 미필적이나마 의도가 있어야 하지만 피고인의 주장만으로 검찰이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로 나선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국민참여재판을 마친 뒤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뉴시스

그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선관위의 경고 조치는 행정지침일 뿐이고, 검찰이 고발인이 제시한 고발 이유 중 사전선거운동과 단일화 후보 명칭 사용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소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출석 불응으로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어 공소기간 만료를 임박해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책임을 미루는 건 아니지만 고승덕 후보가 좀 더 빨리 객관적 서류로 해명했다면 이러한 안타까운 선택까지 안 왔으리라는 지적도 해주셨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아쉬웠던 점은 고승덕 후보의 해명 이후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더라도 의혹은 멈추거나 이후에 고승덕에게 사과를 해서 원만히 해결했다면 고발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았다"고 밝혔다.

결국 배심원 전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재판부는 1심에서 조희연 교육감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illegible]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4·29 국회의원 보궐선거 "꼭 투표하세요!" 4·29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사흘 앞둔 26일 오후 프로축구가 열리는 경기 성남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성남시[illegible]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형 현수막과 피켓을 이용해 투표참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成 리스트' 홍준표 소환 검토

成 측근들 수사 마무리… 증거 확보 위주로 수사 진행

최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근들에 대한 검찰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서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인물들의 소환이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성 전 회장의 정치권 금품제공 의혹과 관련해 홍준표 경남도지사 측에 금품이 전달된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검찰이 우선 홍 지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검찰 등에 따르면 경남기업 관련 의혹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홍 지사에게 1억원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상대로 홍 지사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최측근인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구속)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홍 지사 측에 돈이 전달된 정황에 대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 전 회장이 지난 6일 박 전 상무와 함께 윤 전 부사장의 병실을 찾아 홍 지사에게 돈이 전달된 내용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윤 전 부사장에 대한 조사를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홍 지사에게 조만간 소환 통보를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이완구 국무총리가 2013년 4월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선거 당시 성 전 회장에게 3000만원을 받은 의혹과 관련, 조만간 성 전 회장의 운전기사 여모 씨와 수행비서 금모 씨를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참고인 소환에 앞서 이 총리와 성 전 회장의 동선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일수을 분석 작업을 집중적으로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시기 성 전 회장과 이 총리 주변의 계좌기록 추적 작업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작업이 마무리 되면 홍 지사와 별도로 이 총리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검찰은 리스트에 오른 나머지 인물들인 김기춘·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유정복 인천시장, 홍문종 새누리당 국회의원 등에 대해서도 혐의가 입증되는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선준기자 rsunjun@

'신문강탈' 신세계 이마트 직원 메트로, 주초 검찰에 고소키로

메트로신문사는 신세계그룹(정용진 부회장) 직원들의 메트로신문 강탈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확인된 최이무개 이마트 홍보팀 주임과 라씨의 동료로 추정되는 괴한 등 2명에 대해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메트로신문 강세준 편집국장은 26일 "서울메트로 4호선 회현역 폐쇄회로카메라(CCTV)에 찍힌 사건 당시 영상 녹화물을 분석한 결과 화면 속에서 배포도우미(64)를 폭행하고 신문을 몽지째 탈취한 범인이 신세계 이마트 최주임으로 확인됐다"며 "법무법인과 법률검토를 끝냈으며 고소장이 완성되는대로 검찰에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국장은 "비디오에는 나오지 않지만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했을 때 현장에는 최주임의 동료가 최소한 1명 더 있었으며, 그는 7번 출입구쪽 노상 신문배포대에 놓여있던 메트로신문 전부 즉, 35부를 미리 절취한 상태에서 최주임이 지하에서 도우미로부터 강취해온 신문 40여부를 건네받아 곧바로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며 "일단 피고소인은 이 두 명이며 혐의는 특수강도 및 업무방해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형법 제334조의 특수강도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경우 등에 적용되며 무기나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 적용되며 5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법무법인 천고 김재헌 변호사는 "특수강도와 업무방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고소장이 접수돼 검사가 인지하면 설사 나중에 피해복구와 불처벌 합의가 있더라도 수사와 재판 등 형사절차는 계속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강 국장은 "신문사도 영업방해를 당했지만 당시 회현역 지하에서 최주임에 의해 폭행을 당한 배포도우미가 나이가 많은 분인데다 갑자기 충격을 받아 외상후 스트레스 증세를 보이고 있다"며 "최주임 등 신세계 직원들이 솔직히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와 피해보상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면 최주임 등의 장래를 생각해서라도 가급적 민사로 일을 풀어갈려고 했지만 명백한 증거가 드러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고소장을 제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민규기자 [illegible]@

한잔의 부드러움에
봄을 깨어난다
처음처럼
처음처럼
부드러운
175도
HAPPY WATER
100% 천연암반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